

정책자료 96-03

海外直接投資의 評價와 政策課題

金時中

1996. 6



對外經濟政策研究院

海外直接投資의 評價와 政策課題

金 時 中

1996. 6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序 言

오늘날 世界的으로 經濟活動의 地球村化(globalization) 추세가 深化되면서 海外直接投資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多者間 規範의 제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海外直接投資가 꾸준히 증가하여 90년대 들어 外國人直接投資 유입액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1994년 이후에는 그 증가 추세가 보다 뚜렷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國內外 經濟與件의 變化를 반영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海外直接投資를 보는 시각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즉 우리 기업들의 海外直接投資가 전반적인 經濟活動의 世界化 추세에 맞추어 海外市場의 확보, 국내 産業構造의 고도화 등으로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과 국내 자본의 유출로서 國際收支의 惡化나 産業空洞化를 야기함으로써 경제 전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海外直接投資의 現況, 주요 특징과 문제점,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示唆點 도출을 시도한 본 보고서의 작성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海外投資企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입장을 파악하고 연구의 현실성을 제고한 것 역시 의미있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정책담당자와 관련 연구계에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金時中 博士가 집필하였다. 필자는 초고에 대하여 좋은 논평을 해 준 金準東 博士와 재정경제원 이원식 사무관, 그리고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건국대학교 柳在元 教授에게 사의를 표하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기업체 담당자들에게도 감사를 보낸다. 설문조사 자료처리에 수고해 준 이영우 연구원, 원고정리를 도와준 이경희씨의 노고도 컸음을 밝혀둔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제시된 모든 의견은 집필자의 사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年 6月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院長 柳 莊 熙



〈目 次〉

I. 序 論	9
II. 世界經濟 與件의 變化와 海外直接投資	11
1. 經濟活動의 世界化 趨勢	11
2. 世界의 海外直接投資 動向	12
3. 國際的 規範의 制定 推進.....	15
III.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推移와 特徵	17
1. 海外直接投資의 推移	17
2. 業種別 推移 및 特徵	19
3. 地域別 推移 및 特徵	21
4. 中小企業의 海外投資 增加	23
5. 大型投資의 增加	25
6. 單獨投資企業의 選好	27
IV. 海外直接投資 政策 및 관련 制度의 現況	29
1. 海外直接投資 自由化 政策의 전개	29
2. 事後管理制度	32
3. 支援制度	33
V.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評價	37
1. 海外直接投資의 國民經濟的 評價	37
2. 海外直接投資의 問題點.....	47

VI. 政策課題	53
1. 自由化 政策의 定着 및 完決	53
2. 效率的 支援體系의 수립	56
3. 效果的인 事後管理制度의 實施	59
4. 不作用에 대한 對處	61

〈參考文獻〉	65
--------------	----

〈附錄〉 설문조사 결과요약	67
1. 標本의 性格	67
2. 投資 動機	68
3. 投資準備 過程	72
4. 경영상의 제 측면	72
5. 애로사항	75
6. 現地化	76
7. 評 價	77
8. 政策課題	79

〈表 目 次〉

〈表 II-1〉 世界の 海外直接投資 推移	13
〈表 III-1〉 海外直接投資 推移	18
〈表 III-2〉 業種別 海外投資 推移	20
〈表 III-3〉 製造業 業種別 海外直接投資 推移	20
〈表 III-4〉 地域別 海外直接投資 推移	21
〈表 III-5〉 地域別・業種別 海外直接投資	23
〈表 III-6〉 中小企業 海外投資比重의 年度別 推移(總投資 基準)	24
〈表 III-7〉 件當 平均投資規模 變化推移	25
〈表 III-8〉 投資規模別 海外直接投資 比重 推移	25
〈表 III-9〉 地域別 投資比率別 海外直接投資 比重	27
〈表 IV-1〉 最近의 海外直接投資 制度의 主要 變化.....	30
〈表 IV-2〉 海外投資 金融支援制度 現況	34
〈表 V-1〉 主要國의 海外直接投資規模(國際收支基準)	38
〈表 V-2〉 韓國의 産業構造 推移	45
〈表 A.1〉 標本企業의 投資地域 分布	68
〈表 A.2〉 地域別 投資動機.....	69
〈表 A.3〉 해당 投資地域의 選定 이유	71



I. 序論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었고, 근년에는 상당한 규모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기업들이 '企業活動의 世界化'라는 세계경제의 일반적 추세에 부응하여 기업경영의 시각을 해외로 확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과거에는 輸出을 거의 유일한 국제활동으로 여기던 우리 기업들이 이제는 海外投資를 통한 海外市場 진출이라는 한 단계 높은 國際化를 추진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내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政府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각종 規制를 완화해 온 것이 근년의 해외직접투자 확대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 기업들의 海外直接投資 증대는 國內 投資環境의 악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海外直接投資는 국내 投資財源 및 技術의 해외유출로서 부메랑 효과를 통한 역수입 및 나아가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유발할 수 있는 우려의 대상이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우려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리 經濟의 전반적 成長 추이, 産業構造의 변화 등을 감안한 動態的(dynamic)인 시각에서 파악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본 보고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現況, 特徵, 問題點 및 우리 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海外直接投資 관련 政策方向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의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II장에서는 世界經濟 與件의 변화와 이에 따른 세계의 海外直接投資 推移 및 관련 規範의 등장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 보았다. III장에서는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推移, 業種 및 地域 分布, 規模別 分布, 投資方式 등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분석해 보았다. IV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相关 政策 및 制度를 최근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이어서 V 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總規模 및 國內經濟에 미치는 影響을 평가해 보고, 이어서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별기업 수준에서의 문제점을 추적해 보았다. 마지막 VI 장에서는 앞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海外直接投資 관련 政策課題 및 制度의 改善 方向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附錄에는 본 연구 수행과정에서 해외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정리하였다.

II. 世界經濟 與件의 變化와 海外直接投資

1. 經濟活動의 世界化 趨勢

‘國境없는 經濟(borderless economy)’ 라는 말로 특징지워지는 經濟活動의 世界化(globalization)는 오늘날 물리칠 수 없는 大勢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趨勢의 基底에는 정보·통신·교통 부문의 빠른 기술진보에 따른 지리적 거리의 실질적 단축, WTO체제의 출범으로 상징되는 經濟規範의 凡世界化 및 自由化, EU 및 NAFTA로 상징되는 지역적 經濟統合의 진전 및 TAFTA, ASEM 등으로 시사되는 地域主義의 廣域化 등의 요소가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기업간 競爭의 격화에 대응하여 많은 기업들은 상품의 개발·생산·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기업활동, 즉 附加價值 連鎖體系(value chain)상의 각 활동을 세계 각 지역의 비교우위에 맞게 최적 배치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 결과로 이른바 超國的企業(transnational corporation)이 광범위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企業活動의 世界化를 유도하는 요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첫째로 교통·통신·정보교류의 발달로 인하여 나타나는 세계 각지의 생활방식 및 需要의 同質化, 선진국 국민들의 소득 평준화, 세계적 商標(brand)의 등장,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廣告 등을 포함하는 市場要因을 들 수 있다. 둘째로는 費用要因으로서 技術進步의 가속화, 운송수단의 발달, 기술투자의 대형화로 인한 ‘規模의 經濟’ 압력의 증가, 신흥공업국의 등장으로 인한 저가격 공산품의 범람 등을 들 수 있다. 세째는 政府要因으로서 세계적인 관세·비관세 장벽의 축소, 지역적 經濟統合의 가속화, 舊社會主義 經濟의 市場經濟 이행, 國營企業의 民營化 추세 등을 들 수 있다. 네째는 競爭要因으로서 위의 여러 요인의 작용에 따라 국제적으로 企業間 去來가 증가하는 동시에 競爭이 격화되는 것을 들 수 있다.¹⁾

이러한 여건하에서 기업활동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다양하여 하청생산(subcontracting), 프랜차이즈(franchising), 해외조달(outsourcing), 기술라이선스(licensing), 海外直接投資(foreign direct investment),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등을 포괄하며, 많은 경우 이 방식들 중 몇 가지가 결합되어 나타난다. 이중 海外直接投資는 가장 直接的인 형태의 企業 世界化 방식으로서, 經營權 행사를 목적으로 外國에 投資를 행하는 것을 지칭한다.²⁾ 海外直接投資의 방식도 다양하여 기업의 新規創業(greenfield investment)³⁾, 해외기업의 引受·合併(merger & acquisition : M&A), 해외기업에 대한 持分參與 혹은 長期貸付 등을 포함하는데, 국가에 따라 海外直接投資를 정의하는 방식에 다소의 차이가 존재한다.

2. 世界의 海外直接投資 動向

전반적인 經濟活動의 世界化 추세에 따라 세계의 海外直接投資도 80년대 이후 대체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계 전체의 海外直接投資는 1980년대(특히 82년 이후) 급속한 증가를 보이다가 1991~92년 기간중 다소 침체하였으나 93년 이후 증가세를 회복하였다(〈表 II-1〉 참조). 90년대 초반의 海外直接投資의 감소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 경제가 이 기간중 심한 침체를 보인 데 따른 경기순환적 현상이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93년 이후 선진국 경기의 회복이 나타나고,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의 경제성장이 두드러짐에 따라 海外直接投資도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⁴⁾ 또한 오늘날 세계 각국이 외국인 투

1) Yip(1992), pp.1~15 참조.

2) 반면 經營權 확보의 목적없이 다만 資本利益(capital gain)을 목적으로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海外間接投資 혹은 海外證券投資라고 한다.

3) 신규창업 내에서도 단독투자기업과 합작투자기업(joint venture)이 구별된다.

4) 〈表 II-1〉에 수록된 94년까지의 실적은 과거 恩高를 기초로 한 일본 기업 및 유럽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정점을 이루었던 1989-90년의 수준에는 못미치고 있다. 그러나

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고, 세계적으로 投資 自由化를 위한 제도구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다음 절 참조), 기존의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의 海外直接投資와 관련하여 최근 나타나고 있는 주요 特徵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90년대 들어 開發途上國에 대한 투자가 뚜렷히 증가하고 있다. 80년대의 海外直接投資 흐름은 기본적으로 3대 선진권내에서의 투자, 즉 미국, 일본, 유럽 간의 투자가 대종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海外直接投資가 전반적으로 침체할 때에도 개도국에 대한 투자는 증가를 나타냈으며, 이 증가현상은 93년 이후에도 지속되어 94년에는 開途國이 外國人直接投資 총액의 37.2%를 차지하였다 (<表 II-1> 참조).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開途國

<表 II-1> 世界の 海外直接投資 推移 (單位 : 10억 US달러)

		'90	'91	'92	'93	'94 ³
해외투자 (outflow)	선진국	226	188	171	192	189
	개도국	17	11	19	29	33
	세 계	243 (11)	199 (-19)	191 (-4)	222 (16)	222 (0)
외국인투자 (inflow)	선진국	176	115	111	129	135
	개도국	35	41	55	73	84
	세 계	211 (5)	158 (-25)	170 (8)	208 (22)	225 (8)
경제성장율 (%)	선진국	2.3	0.9	1.4	1.0	2.9
	개도국	3.3	4.8	5.3	5.9	5.5
	세 계	2.5	1.5	2.1	1.8	3.4

註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資料 : 1. 투자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5』

2. 경제성장율 : DRI, 『World Markets Executive of a View』, '95. 6.

3. 94년 통계는 추계치임

최근 UNCTAD의 비공식적 자료에 따르면 95년중 해외직접투자 총액이 3250억에 달하여(전년비 46% 증가)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였고, 이러한 증가추세가 96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Washington Post, June 5, 1996)

들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보이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中國과 같은 대규모 경제가 高度成長을 기록함에 따라 막대한 규모의 外國人投資가 유입됨으로써 개도국 전체의 외국인투자 유입량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⁵⁾

둘째로 海外投資 業種이 과거에는 일차산업과 자원가공 제조업,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집중되었으나 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서비스업과 기술집약적 제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서비스업의 國際貿易은 이른바 ‘商業的 駐在’(commercial presence)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서비스산업에 비교우위를 가진 선진국들이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外國人直接投資의 자유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이 결과로 이 분야의 投資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자·정보 부문의 기술진보를 바탕으로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업종의 外國人直接投資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셋째로, 海外直接投資 방식에 있어서 80년대 중반 이후 引受·合併(M&A)의 비중이 급격히 증대되었다. 이는 先進國을 중심으로 金融市場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의 공개 매수 및 M&A 자금조달(financing) 시장의 발달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제적(cross-border) M&A가 활성화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M&A형 외국인투자는 80년대 미국에서 붐을 이루다가 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유럽으로 확산되었으며, 점차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5)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규모는 1993년 275억 달러, 1994년 338억 달러로서 개도국 전체의 외국인직접투자의 40% 가량을 차지하였다(UNCTAD(1995) 참조).

3. 國際的 規範의 制定 推進

과거에는 GATT로 대표되는 貿易關聯 國際規範은 이미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기능해 왔으나, 國際投資에 관한 다자간 규범은 극히 취약한 상태로 있었다.⁶⁾ 즉 종래에는 국가간에 체결된 쌍무적 투자협정과 유럽 등 일부 지역차원에서의 규범이 존재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海外直接投資가 세계경제 흐름의 주요한 부문으로 등장하면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에 관한 효과적인 國際規範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다. 이러한 움직임의 핵심이 되었던 것이 UR협상 과정에 포함된 무역관련투자조치(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와 서비스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⁷⁾이다. 따라서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TRIMs와 GATS라는 형태로 國際投資 관련 규범이 제정되어 기능하게 되었다.⁸⁾ 그러나 전 세계 海外直接投資를 주도하고 있는 超國的企業들과 선진국 정부들은 이 WTO 규범이 國際投資의 自由化라는 기본원칙에 크게 미흡하다는 입장에서 보다 강력한 多者間 投資規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OECD는 범세계적인 海外直接投資의 自由化를 선도하는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내용을 갖는 多者間投資協定(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OECD는 1995년부터 동 협정에 관한 회원국들간의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2년내 즉 1997년의 협정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협정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분야는 기존 OECD 투자규범의 강화 방안, 투자 및 투자자의 정의, 신규 투자자유화 규범, 투자보호, 분쟁해결장

6) 과거에 존재하던 다자간 규범으로서는 OECD 투자관련 규범,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처리기구(ICSID), 세계은행 가이드라인 등이 존재한다.

7) GATS 중 商業的 駐在 (Commercial Presence)관련 부분이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정이다.

8) TRIMs 및 GATS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4)를 참조.

치⁹⁾, 비회원국의 참여 및 기타 제도적 문제 등이다.¹⁰⁾ 동 협정은 일단 OECD 차원에서 회원국들에 국한하여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협정 체결후 OECD와는 독립된 조약(free-standing treaty)로 발족시킨 후 비회원국들의 참여를 권장하면서 궁극적으로 범세계적 규범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편 WTO에서도 대표적인 신규 협상의제로서 투자 문제를 꼽고 있는 데, 빠르면 1996년 12월 제1차 각료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APEC 차원에서도 무역 및 투자 자유화가 추진되고 있는 등 國際的인 投資自由化 規範 제정 노력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범세계적 투자자유화 규범 논의는 앞으로 대표적인 多者間 通商 이슈로 등장할 것이며, 개도국에게 일정 기간의 유보나 부분적인 예외를 허용하게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포괄적이고 구속력을 가진 투자규범의 제정은 가까운 미래에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한국의 경우 對內 直接投資와 對外 直接投資 모두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國際 投資規範 제정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9) OECD MAI의 분쟁해결장치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정부간의 분쟁 처리는 물론 민간 투자기업과 정부간의 분쟁 처리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10) 각 분야 논의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김관호(1995), (1996) 참조.

Ⅲ.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推移와 特徵

1. 海外直接投資의 推移

우리나라 企業의 海外直接投資는 1968년에 최초의 투자가 나타난 이후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나 '80년대 중반까지는 규모도 미미하고 종류도 비교적 단순한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렀다. 즉 '85년까지 18년간의 海外直接投資 累計가 5억 달러에도 못미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海外 資源開發(鑛業·林業) 및 輸出增大를 주목적으로 하는 貿易業 海外投資의 비중이 높은 단순한 構造를 갖고 있었다. 결국 8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는 外換管理 차원에서의 정부의 규제정책은 물론 企業들의 能力의 限界 및 受動的 자세로 인하여 초보적 수준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는 80년대 중반 이후 國內外 經濟環境의 變化와 政府의 지속적인 規制緩和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즉 國內 資金의 上昇, 80년대말 國際收支 黑字 시현과 換率의 下落(즉 원화의 평가절상), 世界的 經濟統合 趨勢 強化 등의 여건 변화와 海外投資 관련 國內制度의 自由化 進전에 기인하여 海外直接投資가 급속히 증가되어 온 것이다. 다만 시기에 따라 비교적 큰 變動幅을 나타내어, 1988~91 기간중 급증하는 현상을 보인 후, 1992~93 기간중에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가 1994년 이후 다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¹¹⁾(〈表 Ⅲ-1〉 참조).

이 결과 한국의 海外直接投資는 95년에는 약 30억 달러 규모(95년 GDP의 약 0.65%)에 이르고, 95년말까지의 누계로 102억 달러(GDP의 약 2.2%)에 달하였다.

11) 이러한 변동 추이는 총투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허가기준 통계는 이보다 약 1년 정도 선행하는 변동추이를 보인다. 즉 총허가 기준의 해외투자는 1988~90기간중 급증한 후 91~92 기간중 정체하다가 93년 이후 다시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숫자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海外投資 事業의 規模를 정확히 나타내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위 統計는 국내 母企業이 海外現地法人에 직접 투자한 금액만을 포함한 것이고, 海外投資 事業의 실제 규모는 모기업 혹은 現地法人이 國際金融市場 또는 現地 金融機關에서 조달하여 투자한 금액 및 해외파 트너기업이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여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¹²⁾ 특히 國內金利가 높고 規制도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 편차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金融·保險業의 실질적 海外直接投資가 海外直接投資 統計에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 통계가 우리나라의 海外投資 規模를 과소 計上하는 또 하나의 측면이 존재한다.

〈表 Ⅲ-1〉

海外直接投資 推移

(單位：件, 千달러)

年 度	總 許 可		總 投 資		投資殘額*	
	件 數	金 額	件 數	金 額	件 數	金 額
1968-85	691	876.0 (-)	603	570.6 (-)	443	483.9
1986	74	364.9 (-)	52	183.9 (-)	476	645.1
1987	110	371.1 (1.6)	92	410.5 (123.4)	536	936.0
1988	253	479.3 (29.1)	176	223.8 (-45.4)	680	1,130.1
1989	368	943.3 (96.8)	269	569.6 (154.5)	926	1,522.5
1990	517	1,624.8 (72.3)	339	959.3 (68.2)	1,243	2,335.7
1991	539	1,605.6 (-1.2)	453	1,125.4 (17.3)	1,673	3,372.9
1992	632	1,210.4 (-25.0)	500	1,255.0 (11.6)	2,138	4,506.6
1993	1,050	1,888.5 (56.1)	682	1,317.4 (4.9)	2,754	5,578.0
1994	1,949	3,722.7 (97.0)	1,476	2,346.7 (78.2)	4,161	7,648.8
1995	1,560	4,913.6 (37.0)	1,285	3,057.8 (32.7)	5,327	10,233.9

註：()은 前年同期對比 增加率

* 投資殘額은 總投資 累計에서 清算, 減資, 貸附金 回收 등을 차감한 것임.

資料：海外投資統計年譜(1995), 1995 統計는 財政經濟院 國際投資課(95년중 海外直接投資 動向)

12) Graham (1995), pp. 3~4 참조

2. 業種別 推移 및 特徵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 業種은 80년대 중반까지 鑛業·林業·水産業 등 海外 資源開發 事業이 중심이 되어 왔으나, 80년대 중반 이후 製造業의 比重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즉 85년까지의 간존 海外投資中 鑛業·林業·水産業의 비중이 49.7%에 달한 반면 製造業의 비중은 19.2%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 9월말 현재로는 광·임·수산업과 제조업이 각각 9.0%와 56.7%로 순위가 급격히 반전되었다(〈表 Ⅲ-2〉 參照). 특히 流量(flow) 기준으로는 1994, 95년 모두 제조업의 비중이 약 65%(건수로는 71~73%)에 이르고 있는 등 제조업의 비중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그 밖의 업종 중에는 貿易業의 비중이 커서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며, 기타 서비스業의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海外投資는 製造業과 貿易業이 중심이 되는 業種構造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構造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製造業 내에서는 電氣·電子가 주를 이루는 組立金屬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투자 누계중 조립금속업의 비중은 1985년의 17%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최근에는 43%에까지 이르렀다. 이어서 纖維·衣服, 石油·化學, 1次金屬 등의 업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海外直接投資 업종도 우리경제 전반의 産業構造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주종 輸出業種이었으며, 대표적 勞動集約業種인 纖維·衣服業의 海外投資는 80년대 중반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94년 이후에는 그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表 Ⅲ-3〉 參照). 다만 건수면에서는 섬유·의복, 신발·가죽, 기타 제조업 등 노동집약업종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 업종의 경우 투자의 규모는 영세하지만 많은 건수의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III-2〉

業種別 海外投資 推移
(年度末 投資殘額 基準)

(單位 : 百萬달리, %)

業種	1980	1985	1990	1992	1994	1995.9月末
鑛業	1.5 (1.1)	171.2 (35.4)	446.7 (19.1)	580.3 (12.9)	678.1 (8.9)	693.0 (7.2)
林業	22.4 (16.0)	62.9 (13.0)	77.6 (3.3)	77.3 (1.7)	79.2 (1.0)	77.6 (0.8)
水産業	9.0 (6.4)	6.2 (1.3)	87.8 (3.8)	123.9 (2.7)	104.8 (1.4)	94.5 (1.0)
製造業	23.9 (17.0)	92.8 (19.2)	1,061.4 (45.4)	2,273.7 (50.5)	4,191.1 (54.8)	5,455.3 (56.7)
建設業	24.6 (17.5)	36.0 (7.4)	51.9 (2.2)	61.2 (1.4)	137.7 (1.8)	196.7 (2.0)
運輸保管業	2.3 (1.6)	2.5 (0.5)	6.7 (0.3)	23.9 (0.5)	40.9 (0.5)	74.0 (0.8)
貿易業	27.8 (19.8)	71.8 (14.8)	410.3 (17.6)	938.0 (20.8)	1,750.6 (22.9)	1,934.2 (20.1)
不動産	13.3 (9.5)	22.9 (4.7)	38.0 (1.6)	84.7 (1.9)	152.6 (2.0)	159.4 (1.7)
其他	15.4 (1.1)	17.7 (3.7)	155.3 (6.6)	343.5 (7.6)	513.8 (6.7)	934.4 (9.7)
合計 (%)	140.3 (100.0)	483.9 (100.0)	2,335.7 (100.0)	4,506.6 (100.0)	7,648.8 (100.0)	9,619.1 (100.0)

註 : () 내는 당해 年度末 投資殘額에서 차지하는 比重(%)임.

資料 : 海外投資統計年譜(1995) 및 韓國銀行(1995)

〈表 III-3〉

製造業 業種別 海外直接投資 推移
(年度末 投資殘額 基準)

(單位 : 百萬달리, %)

	1985	1990	1992	1994	1995. 9月末
飲食料品	5.0 (5.4)	80.2 (7.6)	123.1 (5.4)	166.3 (4.0)	234.1 (4.3)
纖維·衣服	3.4 (3.7)	150.3 (14.2)	310.6 (13.7)	545.5 (13.0)	661.6 (12.1)
신발·가죽	2.3 (2.5)	49.6 (4.7)	90.3 (4.0)	210.1 (5.0)	258.2 (4.7)
木材·家具	6.9 (7.4)	27.0 (2.5)	94.3 (4.1)	117.4 (2.8)	145.0 (2.7)
종이·인쇄	1.4 (1.5)	17.0 (1.6)	49.4 (2.2)	86.1 (2.1)	94.4 (1.8)
石油·化學	18.5 (19.9)	129.1 (12.2)	264.5 (11.6)	408.1 (9.7)	497.3 (9.1)
非金屬	29.3 (8.0)	42.6 (4.0)	117.4 (5.2)	231.5 (5.5)	322.2 (5.9)
1次金屬	4.5 (4.8)	247.8(23.3)	399.0 (17.5)	464.4 (11.1)	497.3 (9.1)
組立金屬 및 機械·裝備	15.7 (16.9)	279.9(26.4)	667.2 (29.3)	1,627.4(38.8)	2,335.4 (42.8)
其他 製造業	5.8 (6.3)	37.9 (3.6)	157.9 (6.9)	334.3 (8.0)	409.8 (7.5)
合計	92.8 (100.0)	1,061.4 (100.0)	2,273.7 (100.0)	4,191.1 (100.0)	5,455.3 (100.0)

註 : () 내는 당해 年度末 投資殘額의 業種別 比重(%)임.

資料 : 〈表 III-2〉와 동일.

3. 地域別 推移 및 特徵

우리나라의 海外投資는 크게 보아 東南亞, 北美, 유럽의 3개 地域을 중심 대상으로 행해져 왔다. 1995년말 현재 가장 높은 비중(약 45%)을 차지하고 있는 東南亞 地域은 70년대까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80년대 초반 그 비중이 뚜렷히 하강하였으나 80년대 중반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다. 특히 東南亞 地域은 건수 측면에서 70%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제 2위 지역인 北美은 80년대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제1위 投資地域으로

〈表 Ⅲ-4〉

地域別 海外直接投資 推移
(年度末 投資殘額 基準)

(單位 : 百萬달러, %)

	1980	1985	1990	1992	1994	1995
東南亞	50.7 (36.1)	119.9 (24.8)	714.9 (30.6)	1,679.0 (37.3)	3,201.8 (41.9)	4,573.6 (44.7)
中國	-	-	22.1	205.1	1,104.9	1,886.0
인도네시아	26.6	53.5	424.7	747.6	824.6	945.8
베트남	-	-	-	16.8	133.9	307.8
北美	32.8 (23.4)	153.2 (31.7)	1,150.4 (47.3)	1,918.1 (42.6)	2,703.8 (35.3)	3,152.3 (30.8)
美國	32.6	91.9	807.0	1,513.8	2,270.1	2,707.5
캐나다	0.6	61.3	298.4	404.3	433.7	444.9
유럽	5.1 (3.6)	60.1 (12.4)	151.8 (6.5)	386.2 (8.6)	981.3 (12.8)	1,544.4 (15.1)
독일	1.7	5.0	17.4	63.6	250.8	287.2
영국	0.7	3.1	41.4	123.2	175.6	240.1
CIS	-	-	0.5	22.5	123.0	211.8
동구	-	-	1.5	15.6	92.7	111.9
中南美	4.6	10.0 (2.1)	121.1 (5.2)	190.4 (4.2)	237.5 (3.1)	366.5 (3.3)
아프리카	24.1	20.2 (4.2)	45.2 (1.9)	88.8 (2.0)	229.9 (3.0)	276.0 (2.7)
대양주	2.0 (1.4)	81.0 (16.7)	141.3 (6.0)	174.2 (3.8)	221.0 (2.9)	255.0 (2.5)
計	140.3 (100.0)	483.9 (100.0)	2,335.7 (100.0)	4,506.6 (100.0)	7,648.8 (100.0)	10,223.9 (100.0)

註 : () 내는 당해 年度 投資殘額에서 차지하는 比重(%)임.

資料 : 해외투자통계연보 각년판 및 한국은행(1996)

등장하여 90년에는 47.3%에까지 이르렀으나, 90년 이후에는 점차 그 비중이 하락하여 95년말 현재 약 31%에 이르고 있다. 한편 유럽지역의 비중은 80년대 중반이후 꾸준히 증대되어, 95년말 현재 15.1%에 이르고 있다(〈表 III-4〉 參照). 결국 근년에는 동남아와 유럽에 대한 투자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북미의 상대적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95년부터 美國에 대한 초대규모 투자(수억달러 규모)의 신규허가가 여러 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북미의 비중이 재상승할 것으로 예견된다.

國家別로는 90년대 초반까지 美國과 인도네시아가 높은 比重을 차지하며 1,2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92년 韓·中修交 이후 중국에 대한 投資가 급증함에 따라 순위가 변화가 나타났다. 94년 부터는 中國이 流量(flow) 기준으로 최대 투자 대상국이 되고 있으나, 누계기준으로는 여전히 미국의 비중이 더 크다.¹³⁾ 95년말 현재 누적 투자잔액 기준으로는 美國(26.5%), 中國(18.4%), 인도네시아(9.3%), 캐나다(4.4%)의 순위로 나타나 있다. 한편 건수 면에서는 中國이 누계기준으로도 40% 수준을 차지하여, 압도적인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근년에 들어 우리나라 企業의 海外投資 대상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地域으로는 중국 이외에도 베트남, 舊蘇聯(러시아, 우즈벡 등), 獨逸, 동유럽, 멕시코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地域은 대부분 舊社會主義圈 國家로서, 이들 국가가 市場經濟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投資機會에 우리 企業들이 다소의 危險을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地域에 따른 業種分布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선 크게 보아 동남아는 製造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비해, 북미 및 유럽은 貿易業의 비중이 높다. 또한 제조업내에서 동남아는 섬유·의복, 신발·가죽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유럽은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 북미는 조립금속·기계장비 및 1차금속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表 III-5 참조).

13) 그러나 95년도 허가기준으로는 미국이 14억 천만달러(153건)으로 중국의 12억 3천만 달러(877건)를 초과하여 수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에 있어 동남아로는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생산시설 이전형 투자가, 북미·유럽으로는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밖에 광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도 아시아의 비중이 높아져(특히 건수면에서), 자원개발 및 해외건설에서도 아시아가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表 Ⅲ-5〉 地域別·業種別 海外直接投資
(1995年 9月末 現在, 投資殘額 基準)
(單位 : 百萬달러)

	東南亞	北 美	유 럽	全世界
鑛 業	328.3 (7.5)	111.9 (6.3)	14.3 (1.1)	693.0 (7.2)
製造業	3,233.0 (74.3)	1,289.4 (42.0)	638.2 (48.8)	5,455.3 (56.7)
(纖維·衣服)	427.9 <13.2>	43.9 < 3.4>	31.4 < 4.9>	661.6 <12.1>
(신발·가죽)	221.1 < 6.8>	6.3 < 0.5>	7.8 < 1.2>	258.2 < 4.7>
(石油·化學)	380.3 <11.8>	50.6 < 3.9>	44.5 < 7.0>	497.3 < 9.1>
(1次金屬)	68.3 < 2.1>	416.3 <32.3>	8.6 < 1.3>	497.3 < 9.1>
(組立金屬 및 機械·裝備)	1,198.0 <37.1>	598.0 <46.4>	479.9 <75.2>	2,335.4 <42.8>
建設業	58.9 (1.4)	81.4 (2.7)	5.0 (0.4)	196.7 (2.0)
運輸·保管業	52.6 (1.2)	12.5 (0.4)	1.5 (0.1)	74.0 (0.8)
貿易業	263.6 (6.1)	1,151.0 (37.5)	458.0 (35.0)	1,934.2 (20.1)
不動産	142.7 (3.3)	9.1 (0.3)	6.2 (0.5)	159.4 (1.7)
其 他	269.4 (6.2)	412.8 (13.5)	183.8 (14.1)	1,106.5 (11.5)
合 計	4,348.5(100.0)	3,068.1(100.0)	1,307.0(100.0)	9,619.1(100.0)

註 : ()내는 당해 地域 投資殘額에서 차지하는 比重(%).

< >내는 각 業種이 製造業 投資殘額에서 차지하는 比重(%).

資料 : 韓國銀行(1995)

4. 中小企業의 海外投資 增加

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海外投資에 있어 나타난 뚜렷한 特徵으로서 中小企業의 海外投資 增加를 들 수 있다. 80년대 후반에 걸쳐 나타난 賃金上昇, 勞使

紛糾, 勞動力 不足 등 국내 경영여건의 변화도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勞働集約 業種의 中小企業이 활로를 찾기 위하여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동하는 것은 불가 피한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소기업들이 보유한 生産技術 및 노우하우 를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는 賃金 및 勞働供給 條件이 부합하는 해외로 投資하는 것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 결과 中小企業의 海外投資는 8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93년에는 總海外投資 件數의 79.3%, 總投資金額의 24.9%에 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93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 해외투자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비중은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企業活動의 世界化 진전에 따라 大企業들의 海外投資가 활성화한 데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 해외투자 규모의 영세성(건당 평균투자규모 57만달러)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해외투자의 건수비중이 금액비중의 3.4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는 지역적으로 東南亞 地域에 대한 集中度가 매우 높으며, 中南美의 경우에도 中小企業의 比重이 높은 편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 방식에 있어서 現物投資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1995년 13%; 대기업은 1.0%), 중소기업들이 해외투자를 통하여 국내의 요소가격 구조에서 더이상 활용하기 어려운 中古設備를 해외에서 활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投資行態는 경쟁력 상실 企業·産業의 退出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내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表 III-6〉 中小企業 海外投資比重的 年度別 推移(總投資 基準)

(單位 : %)

	1986	1988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殘存
件 數	26.9	34.1	53.4	62.3	73.2	79.3	77.6	71.1	67.3
金 額	2.1	14.3	16.3	17.7	20.2	24.9	23.0	19.7	20.1

資料 : 조영삼(1995) 〈表 II-1〉 (모자료는 韓國銀行) 및 財政經濟院 國際投資課(1996).

5. 大型投資의 增加

우리나라의 海外投資가 급속히 增加하는 과정에서 總計值 및 平均値 分析을 함으로써 간과하기 쉬운 것이 大規模 投資의 增加 현상이다. 평균적으로 보면 90년대 들어 海外投資의 건당 규모가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상승하

〈表 Ⅲ-7〉 件當 平均投資規模 變化推移 (單位 : 백만불)

	'90	'91	'92	'93	'94	'95
許可基準	3.13	2.87	1.91	1.79	1.84	3.15
總投資基準	2.83	2.48	2.51	1.93	1.59	2.38

資料 : 〈表 II-1〉과 동일

〈表 Ⅲ-8〉 投資規模別 海外直接投資 比重 推移 (投資殘額 基準) (單位 : %)

	1980	1985	1990	1992	1994	1995.9월말
1千萬달러 超過	7.5 (0.3)	43.1 (1.4)	52.1 (2.7)	55.0 (3.1)	55.1 (2.7)	57.0 (3.0)
5百萬달러 超過 1千萬달러 以下	28.8 (2.1)	18.3 (2.9)	9.9 (2.6)	10.0 (3.0)	10.9 (2.7)	10.5 (2.7)
1百萬달러 超過 5百萬달러 以下	37.0 (9.4)	22.3 (11.7)	25.5 (21.8)	23.8 (22.5)	22.1 (18.3)	21.3 (18.2)
1百萬달러 以下	26.7 (88.2)	16.3 (84.0)	12.5 (73.0)	11.2 (71.4)	11.9 (76.3)	11.2 (76.1)
平均投資規模 (百萬달러)	0.49	1.09	1.88	2.11	1.83	1.92

註 : ()내는 件數 基準임.

資料 : 〈表 III-2〉와 동일

고 있다. 즉 許可基準으로는 건당 평균규모가 1991~93년 기간중 하락하다가 (93년 184만달러) 94년 이후 다시 상승하여 95년에는 315만 달러 수준에 이르렀으며, 總投資 基準으로는 1991~1994년 기간중 하락하다가 95년부터 재상승하기 시작하였다(〈表 Ⅲ-7〉 참조). 그러나 大型投資의 증가 현상은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이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즉 최근 뚜렷해지고 있는 投資規模의 대형화는 國內 大企業들의 대규모 海外投資 事業이 增加되는 것에 기인한 것인데, 그동안 이 현상이 中小規模 海外投資의 急増現像에 壓倒되어 平均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다가 최근에는 통계적으로도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表 Ⅲ-8〉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천만달러를 초과하는 대형투자가¹⁴⁾ 總投資殘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하여 1980년의 7.5%, 1985년에는 43%, 1995년에는 57%에 이르고 있다. 또한 천만달러 초과의 대형투자의 건수기준 비중도 3%에 이르러 약 150여건을 헤아리고 있다. 이러한 대형투자는 주로 北美와 유럽에서 행해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동남아 등 세계 전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100만달러 이하의 소규모 투자가 4000여건으로 전체 건수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14)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國內 기준으로 千萬달러 이상의 海外投資가 실행된 경우 國際金融·現地金融을 통한 資金調達과 現地 파트너의 投資 등을 합한 실제 投資規模는 그 수배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해외 현지금융에 대한 投資企業의 행태에 따라 상대적 규모의 차이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95년 10월 정부가 새로 채택한 이른바 해외투자 건설화 방안은 일부 기업의 해외투자와 관련한 적극적인 현지금융 활용 및 관행적인 모기업 지급보증에 일정한 제한을 두려고 하는 것이다.

6. 單獨投資企業의 選好

海外投資企業에 있어서 韓國側 持分의 分布를 살펴보면, 100% 單獨投資의 비중이 매우 높아서 57.5%(95년 9월말 잔존투자 기준; 건수로는 50.4%)에 달하고 있으며,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多數持分 企業을 모두 포함하면 그 비중은 79.2%(건수로는 71.1%)에 달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企業들이 해외투자를 실행함에 있어 投資持分 확대를 통한 經營權 확보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表 Ⅲ-9〉 참조). 이는 우리 企業이 지분확대 이외의 수단으로 經營權을 행사할 수 있는 優위요소를 保有하지 못한다는 것과 外國의 파트너 企業과 공동 經營할 수 있는 經營文化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측면에서는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북미나 유럽의 경우 약 70%가 單獨投資인 반면 동남아의 경우에는 單獨投資의 비율이 45%에 불과하다. 이는 동남아의 경우 100% 外資企業을 제한하거나 혹은 여러 방면으로 걸쳐 직간접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기인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동남아의 경우에도 50% 초과 100% 미만의 다수지분 투자의 비율이 뚜렷이 높기 때문에, 한국측의 經營權 집착도가 이곳에서도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表 Ⅲ-9〉 地域別 投資比率別 海外直接投資 比重
(1995년 9월말 현재, 투자잔액 기준)

(單位 : %)

	50%미만			50%	50%초과		
	20%미만	20%이상			100%미만	100%	
東南亞	12.0(20.9)	1.2(1.7)	10.8(19.2)	10.6(10.2)	77.4(68.9)	32.0(24.3)	45.4(44.6)
北 美	15.2(14.7)	7.9(5.9)	7.3(8.7)	1.4(4.4)	83.4(80.9)	13.0(11.0)	70.4(69.9)
유 럽	5.9(16.0)	2.0(4.4)	3.9(11.6)	10.9(14.7)	83.2(69.3)	14.2(12.3)	69.0(57.0)
전세계	13.6(19.3)	3.8(2.5)	9.8(16.8)	7.2(9.6)	79.2(71.1)	21.7(20.7)	57.5(50.4)

註 : ()내는 건수 기준임.

資料 : 〈表 Ⅲ-2〉와 동일



IV. 海外直接投資 政策 및 관련 制度의 現況

1. 海外直接投資 自由化 政策의 전개

우리나라는 과거 만성적인 外換不足 상황하에서 해외자원 개발, 수출촉진 등을 위한 제한적인 분야에 한하여 해외투자를 허용하는 소극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이후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海外直接投資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관련 정책도 점진적으로 自由化 擴大의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특히 92년 9월 이후에 이루어진 수차에 걸친 제도 개편으로 海外直接投資의 自由化가 크게 진전되었다(表 IV-1) 참조).

이러한 제도 개편의 결과 현재는 천만달러 이하 규모의 海外直接投資 사업은 실질적으로 完全 自由化되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인증 만으로 실행이 가능하며, 천만달러~5천만달러의 사업은 허가기관에 신고함으로써, 5천만달러 초과 사업은 허가를 받음으로써 실행이 가능하다.¹⁵⁾ 결국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 건수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1,000만달러 이하의 투자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자유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허가대상은 5,000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에 국한하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국내기술 유출 우려 등 여러 명목으로 해외투자를 제한해 오던 制限業種(1995년 10월까지 14개 업종, 대기업에 한하여 제한한 3개업종 별도)도

15) 여기에서 신고는 해당 허가기관이 관련조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신고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허가기관은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지만 신고수리 대상사업의 경우 50% 이상 자금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외국환은행 및 수출입은행도 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 한편 5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은 해외투자심의위원회(해당 정부부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재경원 제2차관보)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은행외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50% 이상 자금지원 사업에 대하여 허가기관이 된다.

〈表 IV-1〉

最近의 海外直接投資 制度의 主要 變化

199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대상 축소 : 기존의 200만 달러 초과에서 500만 달러 초과 사업으로(500만 달러 이하 사업은 신고수리 대상) ○ 해외투자심의위원회 부의대상 축소 : 500만달러 초과에서 1,000만 달러 초과 사업으로 ○ 해외직접투자시 자기자금조달 의무규정 폐지 ○ 해외직접투자 定義에 융통성 부여 : 투자지분 20%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실질적 경영참가 사업을 해외투자에 포함 ○ 사후관리 강화 : 3천만 달러 초과 혹은 자기자본 이상의 1천만 달러 초과 사업대상
1993.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업종 축소 : 기존 30개 제한업종 중 13개 업종 제한 폐지, 7개업종 제한 완화 ○ 해외부동산 취득 범위 확대 : 보험회사 자산운용 목적 및 해외근로자 개인의 주거용 주택 ○ 허가기관의 다원화 : 기존의 한국은행 및 수출입은행에서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까지
199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업종 축소 : 기존 17개 업종에서 14개로 ○ 허가제도 자유화 확대 : 30만 달러 이하 사업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인증으로 신고수리 대체, 천만달러 이하사업 신고수리 대상, 천만달러 초과사업 허가 대상 ○ 절차 간소화 : 은행의 자금지원과 허가·신고 우리의 동시처리, 백만달러 이하 사업 제출 서류 간소화, 합작투자계약서 현지공관 확인생략 등 ○ 자산운용 목적의 해외부동산 허용대상 확대 : 보험회사 이외 금융기관, 종합무역상사, 연금에게도 허용
199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및 신고수리대상 확대 및 허가대상 축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인증범위 확대 : 기존 30만달러 이하에서 천만달러 이하로 신고수리대상 확대 : 기존 천만달러 이하에서 5천만달러 이하로 허가대상 축소 : 기존 천만달러 초과 사업에서 5천만달러 초과 사업으로 ○ 제한업종 축소 : 기존 14개 업종에서 부동산 관련 3개 업종으로 ○ 자기자금 의무조달비율 도입 : 1억달러 이하 10%, 1억달러 초과 20% 자기자금 조달 비율 부과 ○ 모기업 지급보증에의한 현지금융의 제한 : 총투자액의 50%까지만 지급보증 인정 및 50% 초과시 투자로 간주, 국내 모기업 자기자본 한도이내로 현지금융의 지급보증 규모 제한
1996.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부동산 투자 자유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관련 3개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제한 해제 ○ 해외투자절차의 간소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신용도 A급 국가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15일 자동허가제 실시 ○ 개인사업자 투자한도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50만달러 이내에서 100만달러 이내로

먼저(95. 10) 해외부동산 관련 3개 업종을 제외하고 자유화되었고, 이어 최근(96. 6.1)에는 전면 자유화되었다. 즉 해외부동산 임대업·분양공급업, 골프장건설 운영업의 해외투자는 종래 종합상사 및 해외건설업 면허를 가진 건설업체에 한하여 허용되었으나, 96년 6월1일부터는 모든 법인 및 개인에게 허용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업종 제한은 완전히 철폐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외 부동산 개발투자의 전면적 허용은 개방 초기에 있는 신흥시장 국가에서 호텔, 사무실 건물, 공단 개발 등이 유망한 투자대상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사업활동과 무관한 단순한 해외부동산 취득은 기관투자자(은행, 보험, 연기금 등)와 종합상사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다. 한편 개인의 경우에는 업종 제한은 없으나, 투자규모에 있어서 100만달러 이하 혹은 개인사업체 매출액의 30%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95년 10월 海外直接投資 健實化 방안으로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일정 비율의 자기자금 조달 의무와 해외 現地金融에 대한 모기업의 지급보증의 제한 조치가 새로 도입되었다. 즉 해외차입에 의한 해외투자의 급속한 증가가 國民經濟에 끼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해외투자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화한다는 명목으로, 1억달러 이하의 해외직접투자 사업의 경우 투자액의 10%, 1억 달러 초과시에는 투자액의 20%를 자기자금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현지법인의 現地金融 활용에 대한 국내 모기업의 지급보증에 제한을 두어, 총투자액의 50%까지만 지급보증을 인정하고 50%를 초과하는 지급보증은 投資로 간주하여 상기 비율의 자기자금 투입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모든 해외 現地法人들에 대한 총 지급보증 한도를 현지법인을 설립한 국내 모기업의 자기자본 규모 이내로 제한하였다. 이 조치들은 해외현지법인의 재무구조를 건실화하고, 부실 발생시 外債 증가와 같은 國內經濟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시행되었으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외직접투자 실행 비용을 상승시키는 새로운 규제의 도입으로 이해되고 있다.

2. 事後管理制度

外換管理 차원에서 海外直接投資를 許可(신고수리, 인증 포함)한 機關은 당해 해외투자사업에 대하여 事後管理를 실시하는데, 이는 해외현지법인의 실태파악, 건전경영 유도, 경영부실 및 투자자산의 해외도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있다. 특히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 사후관리 대상을 설정하여, 별도로 사후관리를 행하도록 되어 있다.¹⁶⁾

事後管理의 주요 내용은 허가조건 이행여부 확인, 투자결과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 징구, 현지법인의 운영상태 점검, 각종 보고서의 정확성 여부 및 목적외 사업추진 여부 확인, 청산시 사유의 타당성 및 잔여재산 회수액의 적정성 심사, 법령·규정·허가조건 위배시 제재조치 강구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모기업 및 현지법인으로부터 각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관리하는 것이 사후관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¹⁷⁾

事後管理의 주체는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및 외국환은행 등이 해당되는 투자 許可機關(신고수리 기관 포함)과 現地公館으로 대별할 수 있다. 許可機關은 제출받은 각종 보고서를 검토하여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 관련 동향분석, 경영실태 파악을 위한 현지조사, 허가내용 변경 등에 대한 허가(신고수리 포함), 청산 등에 대한 신고수리 등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現地公館은 현지법인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의 확인, 국내재산의 해외도피 및 무허가 투자 조사, 현지국 법규위반 혹은 기타 부당행위를 통한 대외관계 악영향 여부 조사, 현지 진출 기업협의회의 설치·운영 지도,

16) 중점 사후관리 대상은 3천만 달러 초과 사업, 1천만 달러를 초과하고 투자자의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사업, 제한사업 중 예외로 허가 받은 사업 등을 포함한다.

17) 해외직접투자 관련하여 요구되는 보고서로는 투자자금 송금보고서, 외화증권(혹은 외화채권) 취득보고서, 현지법인 설립보고서,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연도별),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등이 있다.

현지법인의 해산·청산시 잔여재산 처리에 대한 확인, 현지의 투자관련 조치 및 투자환경 변화 조사 등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3. 支援制度

(1) 金融支援

輸出入銀行을 중심으로 각 外國換銀行들이 海外直接投資를 위한 자금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조건은 국내에서의 일반적인 자금대출에 비해 우월하다(表 IV-2) 참조). 특히 수출입은행은 상당액의 자금을 확보하여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을 하고 있으며, 그 지원 형식도 해외투자를 위한 국내 투자자에 대한 자금대출과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지원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¹⁸⁾

다른 外國換銀行들도 外貨貸出 형식으로 海外投資 資金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해외 현지금융에 대한 규제완화가 진전되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한 海外直接投資 資金調達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밖에 특수한 성격을 갖는 해외투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도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개도국에 대한 經濟協力 성격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對外經濟協力基金(EDCF)의 해외투융자자금, 해외석유개발을 위한 석유개발기금, 기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해외자원개발기금, 사업전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유휴설비 해외이전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조립사업자금 등이 존재한다.

18) 1995년의 경우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 융자승인 실적은 4,259억원, 대출집행 실적은 4,082억원에 달했으며, 외국법인(해외현지법인) 사업자금도 약 200억원의 대출실적을 기록하였다.

〈表 IV-2〉

海外投資 金融支援制度 現況

區分	對象	支援條件			取扱機關
		融資比率	利子率	期間	
해외투자 자금대출	해외투자를 행하는 국내기업	90% 이내	고정금리: CIRR~CIRR+1.0% 변동금리: LIBOR+(0.5%~1.25%)	최장 10년 (3년이내 거치포함)	수출입은행
외화대출	해외투자 허가를 받은 국내기업	70% 이내 (중소기업:80%)	LIBOR+1% 내외	최장 10년 (거치기간 1/3범위내)	외국환은행
대외경제 협력기금 자금투융자	개발도상국의 경제 협력성 인정사업	80% 범위내	5~6% 이내	15년 이내 (거치기간 5년포함)	수출입은행
유휴설비 해외이전 자금대출	사업전환 대상업체 · 시설자금 · 운전자금	100% 이내 90% 이내	7% 7%	8년 이내 (3년 거치포함) 3년 이내 (1년 거치포함)	중소기업 진흥공단 〃
해외자원 개발기금	석유이외의 주요 광물 개발사업	80% 이내	5%	15년 이내 (5년 거치포함)	광업진흥공사
석유개발 기금	석유가스유전개발을 위한 탐사비 등	70% 이내 (유개공:100%이내)	6%	18년 이내 (8년 거치포함)	석유개발공사

(2) 租稅支援

海外直接投資와 관련한 조세지원 제도로서는 海外投資 損失準備金制度, 外國納付稅額 控除制度, 外國納付稅額 擬制制度,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배당소득 면제제도 등이 존재한다.

海外投資 損失準備金 制度는 해외투자 활동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투자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손실준비금을 적립하여 損費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손실준비금은 5년간 적립 가능하며,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3년거치 4년 분할 방식으로 이익기금에 산입된다.

外國納付稅額 控除制度는 해외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정부에 法人稅를 납

부할 경우 과실송금액에 대하여 국내에서 해당 세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二重課稅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한편 外國納付稅額 擬制制度는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자국내 우리 해외투자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준 경우 상당액 만큼을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감면해 주는 것이다.

(3) 保險制度

海外直接投資를 행한 후 현지국에서의 비상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장치로서 海外投資保險이 있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제공하는 이 보험으로 담보되는 非常危險에는 수용위험(외국정부에 의한 재산몰수, 박탈), 전쟁위험(전쟁, 혁명, 내란, 정변 등으로 인한 투자사업 불능, 파산), 송금위험(현지국 정부의 지급유예 혹은 환거래 제한 등으로 인한 투자원금 본국 송금 불능) 등이 포함된다. 보험금액은 해외투자금액의 90%(중소기업은 95%) 이내에서 투자자가 정한 금액이며, 이 금액 내에서 실제 손실발생액의 90%(중소기업은 95%)를 보상한다. 보험기간은 3~15년 기간중 투자자가 결정하며,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해당국가의 등급에 따라 정해진 요율을 곱하여 매년 결정된다.

(4) 投資情報 支援

국내 여러 公共機關은 민간기업의 海外直接投資를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정리·분석하여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대표적인 정보지원 기관으로는 수출입은행(해외투자정보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지역정보센터), 산업연구원 등이 있다. 이들 기관들은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소 성격이 다른 자료를 생산하여 제공하는데, 대체로 각국 경제의 동향, 경제정책의 기초, 외국인직접투자 관련제도 및 정책,

부문별 투자환경, 각 지역의 사회기초시설 상황, 각종 생산요소 비용, 기존 투자 기업의 상황 등이 포함된다.

(5) 政府間 協定締結

정부는 전쟁, 수용 등의 非常危險으로부터 海外直接投資를 보호하고 체결국간 투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쌍무적인 投資保護協定을 체결한다. 이 협정의 내용은 대체로 內國民待遇 및 最惠國待遇의 보장, 國有化 및 수용의 금지, 전쟁·폭동 등 긴급사태로 인한 손실의 보전, 투자원금 및 과실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분쟁발생시 해결절차 등을 포괄한다. 한국은 1995년 4월 현재 43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거나 혹은 체결과정에 있다.¹⁹⁾

정부는 또한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국제적 조세처리의 단순화와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하여 쌍무적인 二重課稅防止協定을 체결한다. 이 협정은 보통 사업소득의 과세(일반적으로 사업장 소재국이 과세), 부동산소득의 과세(소재국 과세),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거주국이 과세), 배당 및 이자소득의 과세(양국에서 과세가 능), 이중과세방지(일반국에서의 조세액 만큼 타국에서 세금공제)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다. 한국은 95년 4월 현재 52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체결과정에 있다.²⁰⁾

19) 30개국과는 이미 협정이 발효되어 시행중이며, 6개국과는 서명이, 7개국과는 가서명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20) 42개국과는 이미 협정이 발효하여 시행중이며, 3개국과의 서명이, 7개국과는 가서명이 이루어진 상태다.

V.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評價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國民經濟에 대한 영향이라는 巨視的인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를 평가해 보고, 이어서 微視的 次元에서 우리 기업들의 海外直接投資가 갖는 문제점에 대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1. 海外直接投資의 國民經濟的 評價

(1) 總規模

한 국가의 海外直接投資 規模는 그 나라의 총 GNP 규모, 국제수지, 저축율, 환율, 임금의 수준 및 변동율 등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는 물론, 산업구조 및 그 변화, 기업의 국제화 수준 등의 구조적 변수, 나아가 경제지리적 특성, 경제블력의 형성여부, 외국의 수입규제와 같은 국제경제 여건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한 國民經濟의 적정 海外直接投資 規模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어떤 기준에 따라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는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위에서 제시한 여러 측면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海外直接投資 總規模의 상대적 多寡를 평가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국가간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국가간 海外直接投資의 定義 및 計上 方法의 불일치로 인하여 정확한 국제비교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IMF가 정한 國際收支 기준에 따라 각국 정부가 IMF에 보고한 통계를 사용하여 국

제비교를 시도해 본다(〈表 V-1〉).

이 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海外直接投資는 1994년 25억 달러 수준으로서, 절대 규모면에서 미국의 5.5%,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海外直接投資의 對 GDP 비율은 0.66%로서 영국(2.47%), 대만(1.02%), 독일(0.8%), 미국(0.73%)보다는 낮으나 일본(0.39%)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 시기가 과거 어느 시기보다 높은 최고수준인 반면 외국들은 대체로 침체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²¹⁾(〈表 V-1〉 참조). 특히 海外直接投資 누계액(1994년말)은 절대 규모에서 대만의 1/3, 일본의 1/36에 불과하며, 對GDP 비율도 2.0%에 불과하여 다른 비교대상국들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영국의 1/14, 독일·대만의 1/5, 일본의 1/3 수준). 또한 우리나라 제조업

〈表 V-1〉

主要國의 海外直接投資規模(國際收支基準)

(單位 : 백만 달러, %)

	美國		英國		獨逸		日本		臺灣		韓國	
	FDI	對GDP 比率	FDI	對GDP 比率	FDI	對GDP 比率	FDI	對GDP 比率	FDI	對GDP 比率	FDI	對GDP 比率
1988	15,448	0.32	37,112	4.42	11,432	0.96	34,210	1.18	4,120	3.35	643	0.35
1990	29,950	0.54	19,327	1.96	24,210	1.61	48,050	1.64	5,243	3.27	1,056	0.42
1991	31,380	0.55	16,304	1.60	23,720	1.49	30,740	0.92	1,854	1.03	1,500	0.51
1992	42,660	0.71	18,982	1.80	19,670	1.09	17,240	0.47	1,869	0.88	1,208	0.39
1993	72,590	1.14	25,671	2.71	14,480	0.84	13,740	0.33	2,451	1.10	1,361	0.41
1994	49,380	0.73	25,334	2.47	14,650	0.80	17,970	0.39	2,460	1.02	2,524	0.66
누적 잔고	612,100	9.08	286,400	27.97	194,100	10.58	275,600	6.00	24,800	10.28	7,600	2.00

資料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Feb. 1996(대만을 제외한 모든 통계)

Taiwan Statistical Databook, 1995(대만통계)

Jetro 白書, 投資編 1996(누적잔고 통계).

21) 일본의 경우 94년도 해외직접투자의 對GDP 비율이 0.39%로 우리나라의 0.66% 보다 낮지만, 해외투자가 붐을 이루었던 90년의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480억달러로 GDP의 1.64%를 차지하였다.

의 해외생산비중은 1.6%로서(92년기준), 미국의 26.5%, 일본의 6.1% (89~90년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²²⁾ 결국 위의 여러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海外直接投資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II장에서 소개한 바 있는 오늘날의 世界經濟 與件하에서 앞으로 그 규모가 증가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1994년부터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增加速度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즉 1994년과 95년 모두 海外直接投資가 급증함으로써 GNP대비 海外直接投資의 비율이 0.6%를 상회하여 일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고, 그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²³⁾ 그 규모가 조만간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大企業들의 초대규모 해외투자가 뚜렷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기도 하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 總規模는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있으나, 증가속도 면에서는 매우 높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상대적 규모에 있어서는 주요 국가의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해외직접투자의 급속한 증대 과정에서 國民經濟에 다소의 副作用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經營資源의 不足이 심각한 애로요인(bottleneck)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견된다.

(2) 輸出 및 國際收支에 대한 影響

海外直接投資와 輸出간의 관계는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즉 海外直接投資를 통한 海外生産이 輸出을 대체하는 관계에 있는지 혹은 海外直接投資를 통하여 새로이 輸出이 창출되는 보완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실증

22) 한국은행 (1993) 참조.

23) 해외직접투자 실행액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허가(신고수리 포함)액이 1995년중에도 37% 증가하였다(〈表 II-1〉 참조).

적 논의가 오랜기간 있어왔다.²⁴⁾ 이 분야의 이론적 논의의 핵심은 특정 海外市場의 規模와 이 市場에서의 占有率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는 가정의 현실성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즉 이들이 외생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면 海外直接投資는 해외시장 접근방법중의 하나로서 수출과는 대체관계에 있게 된다. 그러나 해외투자에 의한 現地生産을 통하여 需要를 신규 창출하거나²⁵⁾ 비용감소 등의 방법으로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원자재·부품 수출은 물론 차별화된 완제품 수출 등의 형태로 총수출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海外直接投資가 輸出과 보완 혹은 대체 관계에 있는지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구명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인다. 이 질문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들은 대체로 이 양자간 보완관계가 존재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²⁶⁾ 그러나 연구대상이나 방법에 따라 반대의 결과가 얻어지기도 하며, 다른 요소의 존재로 인하여 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해야한다는 단서가 붙기도 한다.²⁷⁾ 더우기 이들 연구는 외국의 자료를 사용한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와 輸出간의 相關關係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많지 않다. 우선 설문조사 등을 통한 개략적인 분석을 보면 海外直接投資가 현

24) 이들 논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김준동(1994), pp. 27-52, 김준동·강인수 (1995), pp.73-88을 참조.

25) 김준동(1994)는 현지생산을 통해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통로로써 현지 마케팅이나 서비스 제고,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을 들고 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신기술을 획득함으로써 제3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26) 김준동(1994), pp. 28-30 참조

27) 예를 들면 일본의 대외직접투자가 수출을 증가시키는 성격이 강한 반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과거의 수출을 대체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미국의 투자도 유럽과 아시아에 대한 투자는 수출과 보완성을 보이지만,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투자는 대체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또한 수출자유제한(VER) 등의 존재로 인하여 관찰된 통계를 통하여 수출과 직접투자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교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법인에 대한 설비·원자재의 輸出과 국내 생산비 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²⁸⁾ 輸出을 증가시키거나 잠재적인 輸出減少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⁹⁾ 본고 부록에 정리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생산으로 국내 모기업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했다는 회답이 감소했다는 회답의 3배에 달했다. 그러나 해외 생산제품이 국내 모기업의 것과 동종·동급인 경우가 많아서³⁰⁾,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출을 대체할 것이라는 추론도 설득력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와 輸出간의 관계를 回歸分析(regression)을 통하여 분석한 연구로서는 김준동(1994), Ryou(1995), 김준동·강인수(1995) 등이 있다. 먼저 김준동·강인수(1995)는 횡단면(cross-section) 자료를 사용하여 제조업 업종별로 각국에 대한 해외투자액 변동(1989-93 기간중)이 수출액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추정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海外直接投資, 특히 開發途上國에 대한 投資가 輸出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OLS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는 보다 뚜렷한 영향을 나타내주는 반면, 대체변수 추정방법(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에 따른 추정 결과는 開發途上國에 대한 投資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輸出과 보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you(1995)는 “확장된 引力模型”(extended gravity model)에 기초하여 海外直接投資와 貿易(수출 및 수입)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는 한국의 海外直接投資가 유치국에 대한 輸出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輸入에 대한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연계가 밀집한 APEC 지역내 국가에 대한 韓國의 直接投資는 輸出과 輸入을 모두 촉진

28) 예를들어 노동집약적 공정을 해외에 이전하되, 최종제품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29) 김시중 등(1992) 및 본고 부록 참고

30) 강호상 등(1993, P.22)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63%가 이에 해당함.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PEC지역의 경우 역으로 수출이 海外直接投資를 촉진하는 효과도 발견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海外直接投資의 輸出誘發 效果가 개도국에 대한 투자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반면, 선진국에 대한 투자는 수출유발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복과 신발·가죽업에서 해외투자의 수출유발 효과가 뚜렷하며, 화학 및 조립금속에서는 오히려 역수입 유발효과가 발견되었다.

한편 김준동(1994)은 횡단면 분석과 더불어 時系列(time series) 分析도 시도하였다. 시계열 자료를 사용한 분석은 횡단면 자료를 사용한 추정이 海外直接投資를 통한 제3국으로의 수출증가 효과나 時差를 갖고 나타나는 효과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인 海外直接投資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시계열 분석이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가진 상태에서 추정된 결과에 따르면 석유화학업종에서는 해외투자가 수출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식료품 및 비금속광물업의 경우에는 수출이 해외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海外直接投資가 國際收支에 미치는 영향도 단순하지 않다. 海外直接投資는 일단 해당 금액만큼 資本收支에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제조업 분야의 海外直接投資의 경우 현지 공장의 機械·設備 등을 모국으로부터 輸入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³¹⁾초기 貿易收支에 보통 (+)효과를 갖게 된다. 한편 現地生産이 시작된 이후에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여러 통로를 통하여 輸出創出 혹은 輸出代替 效果가 나타나는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일반적인 결과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현 단계의 韓國의 경우 輸出創出 效果가 더 큰 것으로 나

31) 본고의 말미에 수록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외투자기업의 81%가 생산 설비를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25%는 국내의 중고설비를 투자자분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시장여건상 활용이 어려운 기계가 현지의 요소가격 조건에서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타나고 있다. 또한 해외투자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과실송금이 이루어지면 이는 經常 貿易外收支에 (+)효과를 갖게되며, 현지사업을 종료하고 투자원금을 회수하면 資本收支에 (+)가 된다.³²⁾ 따라서 해외직접투자의 국제수지 효과도 단순하게 결론지을 수 없는 복잡한 내용을 가진다.

(3) 産業空洞化의 問題

海外直接投資의 증대와 관련하여 업계·언론·정부에서 제기하는 문제로서 이른바 “産業空洞化”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産業空洞化의 개념은 국내에서의 工業生産, 특히 製造業 생산 전반이 위축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定義와 經濟的 意味(implication)에 대한 정리는 명확히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³³⁾

우선 産業空洞化를 가장 단순하게 정의한다면 “製造業의 쇠퇴로 인한 脫工業化 혹은 서비스경제화 현상” 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國內總生産(GDP)중 製造業이 차지하는 比重이 하락하는 현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단순하게 정의되는 産業空洞化 현상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産業構造의 變化와 구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즉 한 國民經濟에 있어서 工業發展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면 각종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³⁴⁾ 또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제조업내의 업종구성의 변화가 나

32) 해외에서 사업을 지속할 경우 해외투자액은 해외자산으로 계산된다.

33) 産業空洞化 개념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周添城·吳惠林(1990) 참조.

34) 구체적으로 공업생산의 발전과 생산과정의 복잡화에 수반하여 공업생산과 연계된 서비스업, 즉 교통, 통신, 유통, 금융, 연구·개발(R&D), 광고, 마케팅, 보험, 회계, 법률 등에 대한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한다. 또한 산업화 진전에 따른 소득증가에 수반하여 각종 여가활동 및 가사노동의 시장화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업 수요가 증대된다.

타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즉 産業化의 초기단계에 중심적 역할을 하던 低附加價値의 노동집약형 제조업의 비중이 하락하고 이를 대신하여 高附加價値의 기술집약형·자본집약형 제조업의 비중이 증대되는 産業構造 高度化는 경제 발전에 수반되는 바람직한 현상인 것이다.

결국 과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特定 製造業 부문이 쇠퇴하는 현상을 産業空洞化로 해석할 수는 없고, 나아가 단순히 國內經濟에 있어 製造業의 비중이 하락하는 현상도 産業空洞化로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렇다면 産業空洞化 현상은 脫工業化(서비스경제화) 및 製造業 構造 變化의 原因, 速度, 波及效果 등에 기초하여 질적인 판단을 해야하는 보다 복잡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産業空洞化의 발생여부는 전반적인 탈공업화의 수준 및 속도, 고용수준 및 구조의 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조정비용, 쇠퇴산업의 쇠퇴속도와 신흥산업의 성장속도, 貿易收支, 國內總生産(GDP)의 變化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특히 제조업내 신흥 성장업종의 생산 증가분과 쇠퇴업종의 생산 감소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製造業 生産 絶對額의 감소 여부와 總雇傭의 감소(즉 失業의 증가) 여부가 産業空洞化 발생을 판단하는 핵심적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개념에 근거할 경우, 海外直接投資가 産業空洞化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³⁵⁾ 우선 앞 절에서 논의한 바 있는 海外直接投資와 輸出(혹은 貿易)의 관계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 상에서 이 논의가 가능하다. 즉 海外直接投資로 인하여 投資母國(home country)의 수출 및 수입에 어떻게 변화하고 이 결과 국내의 산업생산 및 고용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가 핵심 질문이 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海外直接投資가 輸出入에 대하여 갖는 효과는 매우 복잡한 내용을 갖고 있고, 더우기 海外直接投資가 국내 産業生産 및 雇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연구

35) 해외직접투자가 산업공동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세한 이론적 논의는 배종열(1992) 참조.

를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본고에서는 다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産業構造, 雇傭構造, 總投資 등의 변동을 분석함으로써 海外直接投資에 따른 産業空洞化 발생 여부를 간접적으로 판단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産業構造의 추이를 살펴보면, 國內總生産중 製造業의 비중이 70~80년대에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88년에 32.1%로 정점에 이르렀다. 이후 제조업의 비중은 1994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94년에는 26.8%에까지 이르렀다가 95년에는 다소 상승하였다(表 V-2) 참조). 1994년의 수준은 88년에 비해 5.3%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이 기준에 의거할 경우 제조업의 상대적 쇠퇴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기준만 가지고 産業空洞化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따른다.

이에 따라 製造業 生産의 絶對規模의 변동을 살펴보면, 제조업 생산의 실질성장율은 80년대에는 대체로 경제성장율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90

〈表 V-2〉

韓國의 産業構造 推移

(單位 : %)

	農林漁業	鑛工業 (製造業)	建設業	서비스業 및 其他*
1975	25.0	27.5 (26.1)	4.8	42.7
1980	14.9	31.0 (29.7)	8.4	45.7
1986	11.2	31.9 (30.8)	7.0	49.9
1988	10.2	32.9 (32.1)	7.6	49.3
1990	8.7	29.8 (29.2)	11.5	50.0
1991	7.7	29.0 (28.5)	13.9	49.4
1992	7.4	28.2 (27.8)	13.7	50.7
1993	7.0	27.3 (27.0)	13.9	51.8
1994	7.0	27.2 (26.8)	13.5	52.3
1995	6.6	27.2 (26.9)	14.1	52.1

* 전기·가스·수도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사회·개인서비스업, 정부서비스, 민간 비영리서비스가 포함됨.

資料 : 國民計定 (韓國銀行)

년대에 들어서도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陽(+)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94년과 95년에는 10%를 상회하는 높은 제조업 성장율을 기록하였다.³⁶⁾ 즉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조업 생산의 절대규모는 89~95년의 6년 기간중 연평균 8%의 높은 성장율을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雇傭 측면에서 製造業의 취업자 수는 1991년의 499만을 정점으로³⁷⁾ 그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1995년에는 477만에 이르렀다. 또한 總雇傭중 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8년의 28.5%로 정점에 이른 뒤 하락하여 1995년에는 23.6%에 이르렀다. 결국 雇傭 측면에서는 製造業의 相對的 比重은 물론 絶對 規模에서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製造業 생산의 지속적 성장의 이면에 존재하는 構造變化에 기인한 것이다. 즉 勞動集約的 製造業이 쇠퇴하고 資本集約的 製造業이 성장하는 構造調整의 과정에서 製造業 生産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雇傭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國民經濟 전체의 고용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1981년 1,400만 수준에서 1995년에는 2,000만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失業率은 81년 이후 기본적인 하락 추세를 유지하여 88년에 처음으로 2%대에 진입하였고(2.5%), 그 이후 한번도 3%대로 상승하지 않았다. 특히 94년 이후 높은 經濟成長에 힘입어 失業率이 뚜렷이 하락하여 95년말에는 사상 최저수준인 1.8%에 이르렀다. 특히 90년대 들어 국내 勞動市場에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이와같이 낮은 失業率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거의 完全雇傭 수준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우리 경제의 고용상황은 전반적으로 노동공급 부족 현상을 나타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제조업의 비중

36) 제조업 생산의 실질증가율은 90년 9.7%, 91년 9.1%, 92년 5.1%, 93년 5.0%, 94년 10.4%, 95년 10.7%를 기록하고 있다(재정경제원, 월간 경제동향(1996. 5), p.126).

37) 그 이전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1982년에 303만, 1985년에 350만, 1988년에 488만, 1990년에 491만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었다(ibid, p.134).

이 하락하는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

한편 1995년도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30억5천만 달러로 GDP의 0.65%에 해당하였다(表 II-1) 참조). 동년도 國內總投資率이 37.5%인 것을 감안하면, 海外直接投資 총액은 國內投資 총액의 1.7%에 불과하였다. 또한 總海外投資중 製造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5%로서 國內投資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³⁸⁾, 製造業 부문에 국한하더라도 海外投資가 國內投資의 3.5%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해외투자의 규모 자체는 현재 우리 경제의 규모 및 국내투자 규모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여러 측면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현재 우려할 만한 수준의 産業空洞化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박약하다. 특히 현 단계에서 海外直接投資가 國內의 産業空洞化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이를 근거로 기업의 海外直接投資를 규제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제조업의 상대적 비중 하락이 雇傭과 生産 양 측면에서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남으로써 사회 일각의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업공동화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국내 제조업의 상대적 위축 속도가 너무 빨라지지 않도록 국내투자 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대응이 필요로 된다고 하겠다.

2. 海外直接投資의 問題點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는 진전 단계로 보아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객관적 시각에서 조명해 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먼저 우리 海外直接投資의 全般的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어서 보다 微視的인

38) 국내 全産業 固定資本形成 중 製造業의 비중은 27.7%(1994년)을 기록하였다(國民計定, 1994).

企業 수준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1) 全般的 問題點

첫째, 우리나라의 海外投資는 지역적으로 과도하게 동아시아 및 북미의 몇 개 국가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변화될 기미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즉 동남아시아와 北美的 두 지역이 總 海外直接投資 누계의 77%를 차지하며,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 4개국 만도 總 海外直接投資 누계의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II 장 참조). 특히 최근에는 해외투자가 미국과 중국으로 집중되고 있어서 지역별 집중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지역에서의 投資機會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이 현상은 각 기업들이 타기업(특히 경쟁기업)의 해외투자에 편승하여 하나의 유행을 만들어가는 이른바 bandwagon 효과(다음절에서 상술)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海外直接投資의 業種 分布에 있어서도 製造業의 비중이 과다하며, 제조업 내에서도 조립금속(전자·전기 중심), 섬유·의복, 기타 제조업 등 소수의 勞動集約的 製造業 및 勞動集約的 工程에 집중되고 있다(II 장 참조). 이러한 현상은 국내 산업구조의 특성, 선진국의 수입규제, 국내 사양산업의 해외이전 등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으나, 기업활동의 세계화 진전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큰 약점을 갖는 것이다. 즉 우리 기업들이 유통, 금융, 연구개발(R&D), 인프라 개발(BOT 방식) 등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海外直接投資의 유망 분야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세계경제의 흐름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로, 海外直接投資의 動機도 현지의 저임노동력 활용이나 현지의 수입규제 회피를 통한 시장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受動的 動機가 중심이 되며 적극적 現地市場 진출이나 高度技術의 획득 동기 등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부록 참조). 특히 전세계적인 적정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世界化 戰略 차원에서 해외직

접투자를 행하고 있는 기업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기술, 경영, 브랜드(상표) 등 海外投資에 있어서의 독점적 혹은 경쟁적 우위요소를 보유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네째로 우리 기업의 海外投資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이다. 즉 국내에 해외 각 지역별 경제현황,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해외 각국의 구체적 인프라 상황 및 조건, 투자절차 등에 관한 정보의 축적 및 제공이 불충분하다. 더우기 구체적인 기업의 해외투자 사업 실시를 지원하는 전문적 투자자문업(consulting)의 성장도 미약하다. 또한 기업내에서도 海外投資 사업을 추진하고 現地經營을 담당할 수 있는 人力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海外直接投資가 급증하게 되면 현지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모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새로운 장애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로 우리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외국의 기업과 적절하게 협력하는 경영문화를 갖지 못하여, 100% 單獨投資를 선호하며, 합작의 경우에도 多數持分 보유를 통한 經營權 확보에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결국 우리 기업들의 이러한 형태는 合作을 통하여 현지 유통망 연계 등 현지기업이 보유한 우위요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며, 또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적정규모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2) 企業次元에서의 問題點

가. 投資決定 過程의 문제점

우리나라 기업들의 海外直接投資 行態를 관찰해 보면 투자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고 이 기간중의 사전준비도 치밀하지 않은 것이 발견된다. 즉 해외투자의 결정이 현지 투자여건 및 해당 투자사업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적 문제점 등에 관한 세밀한 妥當性調査(feasibility study)에 기초하기 보다는 최고경영자의 직관적 판단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투자결정 이후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추진과정에서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투자실행 이후 예견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여 곤란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不確實性이 높지만 잠재력이 큰 투자사업의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일본기업의 해외투자 결정과정과 비교할 때 두드러진다.

한편 위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海外投資 결정에 있어서의 bandwagon 효과를 지적할 수 있다. 즉 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에 있어서 동종업계의 타기업 즉 경쟁기업(들)의 행동을 바로 모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海外投資 決定 자체 뿐 아니라, 投資地域 및 投資方法 선정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에게도 광범위하게 관찰되는데, 이 결과 시기에 따라 전체 해외투자의 변동폭이 크게 되며 투자가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특히 이러한 우리 기업들의 행태는 投資誘致國(및 파트너 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投資條件이 우리측에게 불리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결국 위와 같은 企業의 행동은 政府로 하여금 기업의 해외투자 활동에 우려를 갖게 하는 요소가 된다. 즉 정부의 시각에서 볼 때 일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또한 과도한 현지금융에 의존해서 海外投資를 추진하는 것이 현지사업의 부실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外債增加 및 母企業 부실화 등의 형태로 國民經濟 전체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하는 것이다. 특히 80년대 후반 급증하였던 일본의 해외투자 사업의 상당 수가 실패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갖게 하는 요소가 된다.

나. 現地化의 미흡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現地法人 經營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現地化의 미흡이다. 우리 기업들은 국내 母企業을 중심으로 하고 해외 현지 법인을 부속물로 간주하는 經營行態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해외 현지법인도 국내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경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경영방식은 현지에서 적지않은 마찰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 결과 해외 투자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진다. 결국 여러 차원에서 現地化 水準을 提高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現地化의 내용으로는 人的資源의 현지화, 原資材의 현지화, 市場의 현지화, 金融의 현지화, 企業文化의 현지화, 利益의 현지화, R&D의 현지화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현지법인이 현지국의 기업으로서 독자적으로 生存·成長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투자를 행하는 우리 기업들도 이미 現地化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실행하고 있는 현지화의 수준과 내용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現地化의 핵심으로서 人的資源의 現地化를 들수 있는데, 이는 현지인에 의한 현지법인 경영, 특히 현지 종업원 관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 첫단계로서 현지의 사회·제도·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모기업 파견 경영자가 경영을 담당하되 점차로 現地人 中間·高級管理者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현지법인에 있어 현지국의 제도와 문화에 충분한 이해가 없는 한국인이 韓國式 경영을 고집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결국 현지인 高級管理者를 육성하면서 이들을 모기업의 경영문화와 접목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과제인 것이다. 특히 人事·勞務 管理를 담당할 수 있는 현지인 관리자를 양성하는 것이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해외투자 기업들은 대부분의 원부자재를 수입하고 이를 현지에서 조립·가공한 후 제품을 수출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貨加工 方式의 해외투자 사업은 그 수명이 길지 못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현지 원부자재 공급원의 발굴, 현지시장 진출(마케팅, 판매유통망, 광고 등) 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운영자금도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조달을 확대해 나가며, 궁극적으로 獨自的인 財務管理를 목표로 해야할 것이다. 결국 현지법인이 하나의 독립된 기업으로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現地化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VI. 政策課題

1. 自由化 政策의 定着 및 完決

海外直接投資의 주체는 企業이고 그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도 企業이 지게된다. 따라서 海外直接投資 政策의 基本方向은 企業이 利潤動機에 따라 투자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게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두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海外直接投資 관련 政策의 기본은 自由化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政策의 기조는 海外直接投資의 自由化 擴大에 있어 왔으며,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自由化 政策이 완성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여러 측면에서 보다 실질화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정착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政策방향은 ‘世界化’라고 하는 國政 基本방향과 OECD 가입 등의 여건 변화에 맞추어 制度的 自由化를 완결해 나가며 또한 現행의 제도 및 관행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³⁹⁾ 이러한 基本방향 하에서 구체적인 政策課題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39) 1994년말 현재 OECD 국가중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특정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포르투갈, 터키 등 3개국 뿐이다. 일본은 금융기관의 해외투자에 허가가 필요하고, 수산업, 진주양식, 피혁제조업의 경우 국내산업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제한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금융기관의 비유럽지역의 투자에 허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터키는 500만달러 이상 규모의 해외투자에 대하여 허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UNCTAD (1995), pp.310-311.

(1) 海外直接投資 定義 및 許容方式의 擴大

현행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海外直接投資의 定義 및 許容方式은 전통적인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새로운 형식의 해외직접투자 실시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를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기업들이 융통성을 갖고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원칙적으로 20% 이상의 持分保有로 규정하고 있는 海外直接投資의 定義를 10% 이상의 지분보유로 확대하여 OECD 등 국제적 기준과 일치시키는 동시에 기업의 선택범위를 확장시켜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에 持株會社(holding company)를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다수의 기업을 설립하는 방식, 轉換社債(convertible bond) 발행을 통한 해외기업의 인수, 주식가치 평가가 어려운 벤처기업의 인수 등 새로운 유형의 海外直接投資가 보다 용이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海外直接投資 許容方式을 융통성 있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해외직접투자 규정이나 통계 작성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金融·保險業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도 별도의 인가체계를 유지하더라도 개념 및 통계 작성에 있어서 일반 해외직접투자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 申告制度의 改善

현재 천만달러~5천만 달러의 海外直接投資를 申告對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심사부 신고수리라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자료보완 등 이유로 한 접수 거부, 신고수리 지연 등이 나타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허가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이러한 慣行은 制度 自由化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신고수리 요건을 명확히 발표한 후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진 투자신고는 자동적으로 수리될 수 있도록 申告制度의 운영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허가·신고수리 기관 담당자들의 專門性을 제고

하여 업무처리를 效率化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실제 투자사업이 신고내용과 다른 것과 같은 문제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3) 許可制度 運營의 改善 및 完전한 申告制로의 轉換

현재 5천만 달러 이상 규모의 海外直接投資는 海外投資審議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許可機關의 허가를 받은 후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許可制는 資本移動 自由化의 대세에 따라 머지않은 장래에 申告制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그 이전에도 그 운영을 보다 효율화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완전한 申告制로의 전환 시기는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겠으나, 우리가 곧 가입할 OECD가 資本移動自由化 規約 가운데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를 포함하고 있고, 1997년중 多者間投資協定(MAI)도 제정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를 고려하여 머지않은 시기에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기존 海外投資審議委員會(약칭은 海投審) 심의의 實效性을 높이기 위하여는 심의 내용을 國民經濟 전체 및 對外關係에 대한 영향으로 국한하며, 사업 타당성과 같이 기업의 판단이 앞설 수 밖에 없는 분야의 심의는 배제함으로써 물의의 소지를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海投審의 심의기간을 일정 기간(예: 2주 혹은 한달)으로 명확히 제한하여 기업의 사업추진에 不確實性을 제거해야 주어야 할 것이다.⁴⁰⁾ 또한 海投審에 부의되는 해외직접투자 사업 건수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각 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충실한 심의를 실시함으로써 海投審의 권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40) 최근 국가신용도 A급 국가에 대한 투자허가 신청에 한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자동허가제를 실시하였으나, 다른 투자에 대해서도 허가여부 결정에 기한 설정이 필요로 된다고 하겠다.

(4) 自己資金 出資義務 및 母企業 支給保證 制限의 개선

1995년 10월 海外直接投資 건설화 방안으로 총투자액중 일정 비율을(1억달러까지는 10%, 1억달러 이상은 20%) 모기업의 자기자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현지법인의 현지금융에 대한 모기업의 지급보증도 일정 규모로 제한하는 조치가(총투자 규모의 50%; 모기업 자본금의 100%까지) 실시되었다. 이 조치는 기업들이 충분한 준비와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모기업 지급보증에 의한 해외 현지금융을 통하여 대규모 해외투자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것에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러한 조치는 한편으로 투자자금 조달 방식의 건설화를 유도하고 사업 실패 시 국내경제에 대한 파급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갖는 반면, 다른 한편 우리 기업들의 海外直接投資의 費用을 상승시킴으로써 投資決定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기업의 國際 競爭力의 쇠퇴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기업들의 海外投資 能力이 점차 축적되고 정부가 許可制에서 申告制로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시기에는 이러한 규제의 철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제도 폐지의 전 단계로서 자기자금 조달의무 비율을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10%로 단일화 하는 방안과 현지금융에 대한 모기업 지급보증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 效率的 支援體系의 수립

(1) 支援政策의 基本方向

政府가 民間企業의 海外直接投資를 지원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임무는 주요 해외투자 대상국과 적절한 外交關係를 유지하여 기업인의 身邊保護를 보장하는

한편, 가능한 유리한 조건으로 投資保障協定 및 二重課稅防止協定을 체결하여 기업들의 투자활동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있다. 또한 주요 국가들과 원만한 通商外交를 수행함으로써 현지의 우리 투자기업들이 현지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기본적인 지원 임무의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政府는 이와 더불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외직접투자 활동을 하도록 制度의 自由化를 추진하는 한편, 기업들의 海外投資 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支援制度를 운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外部效果(externality)가 큰 방면에서의 間接的 支援을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며, 直接的인 支援을 통해 資源配分의 歪曲을 초래하는 것은 가능한 피해야 할 것이다.⁴¹⁾

(2) 體系的인 情報支援

위와 같은 기본 방향에 근거하여 우리 기업들의 海外直接投資의 決定 및 效果的인 實行을 돕기 위하여 海外 經濟情報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정부의 지원업무가 될 것이다. 개별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차원에서 해외 각 지역의 경제상황, 외국인투자 관련제도 및 정책의 추이, 사회간접시설의 현황 및 비용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해외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민간에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해외공관, KOTRA 무역관 등 해외 주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이러한 기능

41) 설문조사에도 나타나듯이(부록 참조) 기업들이 가장 희망하는 것은 금융·조세 등의 직접적인 지원이다. 그러나 이들 부문의 직접적인 지원은 국내 투자에 비해 해외직접 투자에 우월한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적정규모 이상의 해외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기관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특성화 및 이들 정보간의 연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와 같은 一般的情報의 제공과 더불어 個別 海外投資 事業의 타당성 조사 및 기타 지원을 수행하는 投資諮問(consulting) 기능의 확충도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은 공공부문 보다는 민간부문이 담당해야 할 것이지만, 이 부문의 발전이 미약한 현 상황에서는, 政府가 해외투자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民間企業이 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保險機能의 擴充

政府가 政策的으로 민간기업의 海外直接投資를 지원해야 할 또 하나의 분야로서 保險을 들 수 있다. 제도, 언어, 문화가 다른 외국에 투자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데에는 예상하기 어려운 危險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정책적으로 이러한 추가적 위험에 대한 일정한 보호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호장치로서 한국수출보험공사가 해외직접투자보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험의 대상, 담보위험, 보상을 등이 제한적이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즉 保險의 대상은 기존의 투자원금 및 과실에서 모기업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하며, 담보위험에는 전쟁·수용 등 非常危險에 더하여 합작기업 파트너의 파산 등 제한된 범위의 信用危險을 포함하도록 확대할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투자 보험에 대한 弘報를 강화하여 해외투자 실시 기업들의 保險制度에 대한 인식과 실제 이용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 專門人力의 養成

최근 국내에서 世界化를 추진하면서 國際問題에 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는 하지만, 이에 관한 專門人力은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등 각 부문마다 세계 각국의 언어는 물론, 경제, 제도, 문화 등에 익숙한 人力에 대한 需要가 供給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 부문의 人力需要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정규 학교교육에 있어서 이들 분야에 보다 내실있는 교육이 행해지도록 유도·지원함은 물론 그외의 여러 통로를 통해 國際問題에 대한 專門人力 養成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국제문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기능을 부여하여 지원하거나, 個別企業 차원에서 해외 지역별 전문가 양성을 시도하는 것에 대하여 일정한 세제상의 우대를 제공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기업 차원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海外 각 地域 및 海外投資 관련 연수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서는 기존 해외 투자 기업에서 실제 경영을 담당하였던 經營者들이 생생한 경험을 전달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3. 效果的인 事後管理制度의 實施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기존의 事後管理制度는 과거 外換의 海外流出 우려가 중요한 관심사이던 상황에서 海外直接投資를 허가받은 소수의 해외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높은 규제적 성격을 갖는 제도라고 평가된다. 현재와 같이 해외 투자 기업이 증가한 상태에서, 다수의 형식적 보고서나 경영상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事後管理 擔當機關의 업무도 가중시키면서도 그 실효성은 상실해가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海外直接投資의 自由化가 확대되어 가면서 적절

한 事後管理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事後管理制度의 改善의 基本方向은 事後管理 내용의 단순화 및 그 실효성 확보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현재 사후관리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지법인 운영상태의 점검, 투자결과에 대한 관계 증빙서류의 징구 및 심사 등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실제 事後管理는 허가(신고) 내용의 이행여부, 불법적 외화유출 방지에 국한해야 할 것이다. 현재 海外投資 企業은 매년 허가기관이 요구하는 소정 양식에 따라 연간 事業實績 및 決算報告書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⁴²⁾, 이는 外國法人의 經營活動에 대한 모국 허가(신고수리)기관의 불필요한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소규모 투자자의 경우 국내에 이러한 報告書 作成·提出을 담당할 인력이 脆弱하기 때문에 보고의무를 이행 못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이 보고서 징구의 실효성도 높지 않아서 이 보고서에 기초하여 한국은행이 발간하던 ‘海外投資事業 成果分析 報告書’도 1993년 이후 발간이 중지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제출 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投資企業으로 국한하고, 제출 의무도 투자실행 이후 일정기간 동안으로 제한하는 방안 및 보고서 내용의 단순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海外直接投資 실행의 근거로서 送金報告書와 外貨證券取得報告書를 각각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으로써, 이중적인 부담이 발생함은 물론 해외시장의 경우 주식 등 증권이 항상 발행되는 것도 아니고 벤처 기업 등의 경우에는 주식 평가에 큰 어려움이 수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투자실행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단일화하고, 그 형식도 기존의 送金報告書나 出資履行報告書(가칭) 제출 등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海外直接投資 企業 清算시 해야하는 사전보고 및 사후보고를 단일화하는

42) 한국은행이 요구하는 결산보고서 양식은 해외현지법인이 현지국에서 사용하는 회계 기준과 다른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이중작업이 불가피하다.

한편,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의 현지공관 확인절차를 철폐하고 이를 현지 공인회계사의 확인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⁴³⁾

한편 海外投資 企業의 實態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현지국 정부와의 通商協商 및 국내 經濟政策에 참고하기 위하여는 체계적인 標本調査 및 現地實査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 일본 등의 예를 면밀히 검토하여⁴⁴⁾ 정부가 체계적인 실태조사 방법을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이들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간의 協議體를 형성하여 현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自律調整 및 현지 정부와의 對話窗口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서⁴⁵⁾, 우리도 주요 지역에 대해서 해외진출 기업간 협의체 결성을 유도하고, 이미 형성된 협의체의 경우에는 활성화를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각국의 해외투자 기업 현황이나 투자환경 상의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도 이러한 지역별 협의체의 도움을 받아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4. 不作用에 대한 對處

國內外 經濟與件의 변화와 관련정책의 自由化 확대의 결과 海外直接投資가 급증하고 있고, 그 결과 여러 종류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國民經濟 차원에서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海外投資 급증에 수반하여 나타

43) 다만 현지국 공인회계사의 공신력이 약한 일부 국가에 한하여 공관 확인절차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44) 미국은 商務部, 일본은 通産省이 해외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상세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45) 예를 들어 한국에 형성되어 있는 미상공회의소(AMCHAM), EU상공회의소 등을 들 수 있다.

나고 있는 구체적인 부작용으로서는 現地法人에서의 勞使紛糾 및 이에 기인한 국가 이미지 실추, 失敗事例의 發生, 現地企業과의 분쟁, 해외진출 국내기업들간의 분쟁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의 급증으로 인한 國民經濟的 波及效果로서 産業空洞化 및 國際收支 赤字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우리 기업들이 경험과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海外直接投資를 급격히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여러 부작용들은 당분간 不可避하게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그에 따른 부정적 여파를 완화하는 차원에서는 여러 종류의 대처방안이 필요로 된다. 우선 全經聯이나 商工會議所 등 기업간 단체 차원에서는 海外投資(혹은 보다 광범위하게 企業의 海外活動) 行動指針을 제정하고 이를 회원사들에 주지시킴으로써 해외에서의 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은 해외 각국의 투자정보 제공, 해외투자 관리자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海外直接投資 增大로 인한 國際收支 惡化는 우리 경제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資本收支가 상당한 黑字를 기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海外直接投資의 增大는 적절한 資本輸出의 통로가 되고, 이로 인하여 換率引下 壓力을 弱化시키는 효과도 갖는다. 또한 현 단계에서 海外直接投資로 말미암은 設備 및 原副資材 輸出 增大가 逆輸入 규모를 초과하는 상황이므로, 貿易收支도 改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海外直接投資 증대로 인한 國際收支 惡化問題는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우려할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海外直接投資 증대와 관련하여 보다 심각하게 제기되는 문제로서 국내의 産業空洞化 우려를 들 수 있다. 즉 國內投資를 대체하는 성격의 海外直接投資가 증대됨에 따라 특히 제조업 부문에 대한 國內投資의 萎縮, 나아가 國內 産業生産의 萎縮 및 競爭力 약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 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해외직접투자 증대로 인한 産業空洞化 현상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전체 경제에서 製造業이 차지하는 비중이(약 27%) 일본, 대만 등 경쟁국이 우리의 경제발전 수준에 있을 때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최근 대규모 海外直接投資가 뚜렷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산업공동화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방안은 국내의 投資環境을 改善하여 國內은 물론 外國으로부터 投資를 유치하면서,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큰 무리없이 달성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는 각종 規制의 緩和, 社會間接施設의 확충, 勞使關係의 안정 도모, 金融市場의 효율화, 벤처 기업의 창업 지원 등을 통하여 이른바 高費用-低效率의 經濟構造를 低費用-高效率의 構造로 전환해 가는 것이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海外直接投資를 우대하는 金利構造 등을 개편하여 국내의 자원배분의 歪曲 가능성을 시정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즉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資金貸出의 조건이 국내 투자에 대한 자금대출 조건에 비해 뚜렷이 우월한 현 상황을 시정하여⁴⁶⁾, 점차 동일한 조건하에서 기업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적정한 투자지역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海外投資事業은 외국에서 현지기업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점과 아직도 국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資金支援條件의 변경은 國內外 金融市場 조건에 따라 漸進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정한 해외투자 장려사업에 대해서는 유리한 금융조건을 유지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46) 참고로 수출입은행 해외투자자금은 소요자금의 90%까지 변동금리로는 Libor + 0.5%~1.25%, 고정금리는 CIRR + 0.5%~1%의 조건으로 대출하고,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금융지원 조건은 국내투자를 위한 자금대출 조건에 비해 훨씬 유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姜鎬相·李載裕·金龍昱, 제조업의 효율적인 해외투자 정책방향, 1993, 한국무역 협회
- 金寬濤, “OECD 多者間投資協定の 추진현황 및 전망,” 199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95-02
- 기업세계화 지원기획단, 21세기 기업세계화의 장기비전 및 전략, 1994. 12
- 金時中, 閔充其·柳在元, 海外直接投資의 현황과 정책과제, 1992,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정책자료 92-09
- 金龍烈, “해외투자 규제조치의 득과 실”, KIET 실물경제, 1995. 9. 13
- 金準東, 글로벌화 시대에서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199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자료 94-16
- 金準東·康仁洙, 해외위탁가공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의 효과분석, 1995,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5-11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출범과 신교역질서, 1994
- 裴宗烈, 국제수지 적자 시대의 해외투자 정책방안, 1992, 한국수출입은행
- 徐相祿,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국제화 전략, 199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 책연구 90-10
- 재정경제원 국제투자과, “95년중 해외직접투자 동향”, 1996. 2
- 曹永三, 중소기업 해외직접투자의 구조와 성과, 1995, 산업연구원
- 周添城·吳惠林, “臺灣產業空洞化問題的省思與檢討”, 經濟前瞻, 1990. 10, 中華經 濟研究院
-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각년판
- 한국은행,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 1995, 조사 제1부(조사연구 자료 95-22)
- 한국은행, 1995년도 해외직접투자 동향, 1996 (천리안)

Graham, E.M.,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World Economy," 1995, IMF Working Paper

Ryou, Jai-Won, "Korea's Outward Direct Foreign Investment and the Division of Labor in the Asia Pacific," 1995,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in the Pacific Basin (U.C. Berkeley, June 29-30, 1995)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3, 1994, 1995

Yip, George S., Total Global Strategy, 1992, Prentice Hall

〈附錄〉 설문조사 결과요약

1. 標本의 性格

- 海外直接投資를 행하는 모기업을 대상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약 4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 157개 기업으로 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음.

- 157개의 표본기업의 규모별 분포는 대기업의 72개(투자액 11억달러 : 건당 평균 518만달러), 중소기업이 85개(투자액 2억천만달러 : 건당 평균 245만달러)로서, 모집단에 비해 대기업의 비중이 다소 높음.

- 157개 표본기업중 143개 기업이 복수의 해외투자사업을 수행중인 것으로 회답하여, 모집단에 비해 해외투자 경험이 다소 많은 표본인 것으로 나타남.
 - 해외현지법인 설립년도에 있어서도 회답기업중 80% 이상이 1994년 이전에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 모집단에 비해 해외투자의 연륜이 긴 표본인 것을 알 수 있음.

- 표본의 해외투자 지역분포는 〈表 A. 1〉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56건, 3억8천만 달러, ASEAN(50건, 6억9천만 달러), 미국(10건, 5천7백만 달러), EC(7건, 5천 백만달러), 중남미(9건, 4천6백만 달러) 등으로 나타남.
 - 표본의 투자지역 분포는 모집단과 비교해 미국, 캐나다의 비중이 낮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 한편 본 부록에서 하는 지역별 분석에서 중국과 아세안을 제외한 지역의 분

석 결과는 표본수가 과소하여 해석에 신중해야 할 것임.

- 표본의 해외투자 업종분포에 있어서는 전기·전자(40건), 섬유·의복(33건), 화학(13건), 기계·장비(10건), 기타 제조업(16건) 등으로 모집단의 분포와 큰 차이가 없음.

〈表 A.1〉

標本企業의 投資地域 分布

(單位 : 건, 만달러)

區 分	중 국	ASEAN	미 국	E C	중남미	서남아	소동구	멕시코	其 他*
件 數	56	50	10	9	9	8	5	2	8
投資額	37,948	68,994	5,705	5,157	4,560	1,282	1,065	3,700	2,639

* 기타는 아프리카(3건), EC외 유럽(2건), 캐나다(1건), 일본(1건), 중동(1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투자금액은 이중 회답을 하지 않은 2건의 투자를 제외한 것임.

2. 投資 動機

- 해당기업의 해외투자 동기에 대해서는 8가지의 잠재적 동기를 설문으로 제시하고, 각 항목에 대하여 0~5까지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음.

※ 이 평가방식은 본 설문조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는데, 중간치인 2.5를 해석의 기준으로 삼고자 함.

- 지역별로 각 투자동기에 부여한 평균점수를 계산하여 정리한 결과는 〈表 A.2〉에 제시되어 있음.

〈개도권 주요 지역에 대한 투자동기〉

- 개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동기는 모든 지역에 걸쳐 '저임노동력 이용' 동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7~4.6), 이어서 '제3국시장 진출' 동기(2.5~4.0), '현

지 정보수집 및 시장진출 교두보 마련' 동기(2.5~2.9), '현지시장 진출동기' (1.25~3.2) 등이 눈에 띄게 나타남.

○ 중국의 경우 다른 개도권 지역에 비해 '현지시장 진출동기' (3.2)와 '정보수집 및 시장진출 교두보 마련'(즉 미래시장 진출) 동기(2.9)가 뚜렷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선진권 주요 지역에 대한 투자동기〉

- 미국의 경우 투자동기가 '현지정보수집 및 시장진출의 교두보 확보'(3.9), '현지시장 진출'(3.6), '기술습득'(2.7), '현지의 원자재 도달'(2.5)의 순서로 나타났음.

〈表 A.2〉 地域別 投資動機

지역명	해당기업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미 국	10	1.58	0.67	2.50	1.33	3.58	2.67	3.92	2.25
멕시코	2	5.00	5.00	1.5	0.00	2.50	0.00	2.50	2.50
중 미	6	3.17	3.17	0.5	0.17	1.83	0.33	2.83	4.00
남·미	3	4.67	1.33	1.67	0.00	2.33	0.00	1.00	2.67
중 국	56	4.27	1.54	1.70	0.98	3.18	0.95	2.86	2.73
아세안	50	4.02	1.12	1.76	1.00	2.32	0.84	2.62	2.76
대양주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서남아	8	4.63	2.13	2.25	1.25	1.25	0.88	1.75	2.50
유럽공동체	7	2.29	4.43	2.00	1.14	3.86	2.43	4.00	2.86
Non EC유럽	2	0.50	2.49	1.49	0.50	4.48	1.49	3.49	2.49
소동구	5	2.00	1.60	0.80	0.40	3.80	1.00	3.60	3.00

- 註 : ① 현지의 풍부한 저임노동력을 이용
 ② 현지국의 수입규제정책을 회피
 ③ 현지의 풍부한 원자재 조달 이용
 ④ 현지의 천연자원을 개발·도입
 ⑤ 매력적인 현지시장 진출에 유리
 ⑥ 기술 획득 및 도입에 유리
 ⑦ 현지 정보수집 및 시장진출의 교두보 마련
 ⑧ 제3국 시장진출에 유리

-EC의 경우에는 투자동기가 ‘현지국의 수입규제 회피’(4.4), ‘현지 정보수집 및 시장진출의 교두보 확보’(4.0), ‘현지시장 진출’(3.9), ‘제3국 시장진출’(2.9)의 순서로 나타났음.

-선진권에 대한 투자는 대체로 현지시장 진출(현재 혹은 미래의) 동기가 강하게 나타났으나, EC의 경우에는 수입규제 회피 및 제3국(주로 EC내) 시장진출 동기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기업규모에 따른 투자동기〉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지시장 진출’(3.2 대 2.5)와 ‘현지 정보수집 및 시장진출 교두보 확보’(3.1 대 2.6)의 동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저임노동력 이용’(4.1 대 3.2) 및 ‘제3국 시장진출’(2.9 대 2.6) 동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남.

〈투자국의 선정동기〉

-해당 투자지역 선정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투자동기와 상응하는 대답이 얻어졌다.

○ 미국의 경우는 ‘현지시장의 규모와 유망성’(3.3)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EC의 경우는 ‘사회간접자본의 수월성’(3.9), ‘현지시장의 유망’(3.4), ‘현지국 정부의 인센티브’(2.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개도권의 경우 모두 ‘저임노동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선정 이유로 나타났으며, 특히 멕시코(4.5)와 서남아(4.3)는 이 이유가 압도적임.

○ 저임노동력 확보는 중국(4.0), 남미(3.7), 아세안(3.4)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表 A.3〉 해당 投資地域의 選定 이유

지역명	해당기업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미 국	10	0.75	1.92	0.75	0.75	3.33	1.33	0.00
멕시코	2	4.50	1.00	1.00	1.00	2.50	1.00	0.00
중 미	6	2.83	1.17	1.83	1.50	2.17	0.50	0.00
남 미	3	3.67	2.33	1.33	0.00	0.00	0.00	0.00
중 국	56	3.98	1.71	1.27	0.70	3.02	0.66	0.07
아세안	50	3.44	1.20	2.46	0.86	1.72	0.34	0.38
대양주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서남아	8	4.25	1.63	2.37	1.63	0.50	0.13	0.63
유럽공동체	7	1.86	1.00	2.71	3.86	3.43	0.86	0.00
Non EC유럽	2	0.00	0.00	2.49	0.00	4.48	0.00	0.00
소동구	5	2.20	0.40	2.60	0.60	1.60	2.00	0.00

- 註 : ① 노동의 질에 비해 임금이 싸기 때문
 ② 원자재·부품의 조달이 용이하기 때문
 ③ 현지국 정부의 투자인센티브가 좋기 때문
 ④ 도로·항만·통신·전기 등 사회간접자본 때문
 ⑤ 현지 시장의 규모가 크고 유망하기 때문
 ⑥ 현지 기술습득 때문
 ⑦ 기타

로 나타났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현지시장의 규모와 유망성(3.0)이 높게, 아세안의 경우에는 ‘현지국 정부의 인센티브’(2.5)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투자기업의 경쟁우위 요소〉

— 투자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생산기술상의 우위(3.1)와 경영 노하우상의 우위(3.0)를 해당 해외투자 사업의 경쟁력 요소로 꼽고 있음.

○ 생산기술상의 우위요소는 특히 아세안(3.7)에서, 경영 노하우상의 우위는 특히 중국(3.3)에서 높게 나타났음.

- 현지 정부·파트너와의 관계구축상의 우위는 EC(4.1) 및 남미(2.7)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마케팅 능력의 우위요소는 뚜렷이 높은 지역이 없었음.

3. 投資準備 過程

- 海外直接投資를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기업이 자력으로 획득하는 것 (3.5)이었으며, 특히 대기업의 경우는 이 비중이 더욱 높았음(4.1).
 -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해당기업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높았으나(3.0), 수출입은행, KOTRA 등의 지원기관을 통한 정보·자료 수집도 어느정도는 활용하고 있음(2.6).
- 투자준비 기간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필요한 정보수립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었으며(2.9), 이 애로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3.0 대 2.6).
 - 중소기업들은 이외에도 현지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에 다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2.6).

4. 경영상의 제 측면

〈資金調達 方法〉

- 해외투자 자금의 조달방법으로서는 자기자금에 대한 의존이 가장 높아서 100% 자기 자금으로 조달한 경우가 응답기업(147개 기업)의 33%(49건)에 해당하였

으며, 50% 이상(100% 미만)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한 경우는 46.3%(68건)에 달하였음.

- 투자자금의 50% 이상을 수출입은행 대출자금으로 조달한 경우가 30.6%(45건), 기타 국내금융기관에 의존한 경우가 17.0%(25건), 외국 금융기관에 의존한 경우가 15.0%(22건)를 차지하였다.

한편 현지법인 운영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현지 금융기관 활용의 비율이 제일 높고, 그밖에 모기업의 자금지원이나 외국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자금조달도 다소 존재한다.

〈生産 活動〉

현지법인의 생산설비 도입에 있어서는 한국으로부터 신설비는 수입하는 경우가 가장 비중이 높아서 응답기업의 56%(85건)에 이르렀고, 국내의 중고설비를 투자지분으로 제공하는 25%(38건)를 포함하면 한국설비 도입이 전체의 81%를 차지함.

- 그 외에는 현지 합작파트너의 기존설비를 이용하거나(18건 12%),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8건 5.3%) 등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음.

현지 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 조달방법에 있어서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59건, 39%), 이어서 현지조달이 중심이 되고 한국으로부터 일부 수입하는 경우 (41건, 27%)와 전량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37건, 24%)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중심이 되는 경우는 (8건, 5%)로서 극소수에 불과함.
- 한편 원자재 현지조달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는 120건의 회답중 37건에

해당되어 24%를 차지하고 있음.

〈販賣 活動〉

- 제품 판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수출비율이 59%로서, 현지시장 판매보다는 수출이 중심이 됨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1992년의 조사에 비해서는*(79%) 수출비율이 20% 포인트나 하락하여 현지시장 판매비율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⁴⁷⁾
 - 지역별로는 EU지역의 수출비율이 45%로 제일 낮고, 멕시코(95%), 소·동구(80%), 아세안(66%), 중국(50%)으로 나타났음.
- 總輸出중 對韓國 수출 비율은 평균 19%로서(1992년 조사와 비슷) 역수입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났음.
 - 중국의 경우가 37.5%로 역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응답기업중 28%에 해당하는 31개 기업이 의무수출 비율을 부과받고 있으며, 그 비율은 평균 65%에 이르고 있다.

〈勞務管理〉

- 해외 現地法人의賃金水準은 대체로 낮아서 생산직의 경우 EU를 제외하고는(국내 수준의 103%) 모든 지역에서 국내 보다 낮은 수준임.
 - 생산직의 경우 서남아의 임금수준이 국내의 12% 수준으로 제일 낮고, 이어 중국(19%), 아세안(21%) 등 주요 투자지역의 임금수준도 국내의 1/5 수준으

47) 김시중·민충기·유재원(1992) 참조.

로 나타났음.

- 사무관리직의 경우도 미국(120%), EU(112%)를 제외하고는 국내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임.

- 현지의 노동생산성은 평균 국내의 65% 수준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중국이 88%, 아세안이 68%, 서남아가 70%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 노동생산성의 수준은 임금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海外現地法人에 勞組가 결성되어 있는 경우는 응답기업의 26.2%(36건)에 해당하였으며, 勞動爭議를 경험한 경우는 응답기업의 10.4%(14건)를 차지하였음.

5. 애로사항

- 전반적으로 높게 지적되고 있는 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 적기조달의 어려움(2.92), 낮은 노동생산성과 노무관리의 어려움(2.91), 인프라의 불충분(2.86), 운영자금 조달의 어려움(2.62)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지역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는 運營資金調達의 어려움(4.7), 원자재 적기조달의 어려움(4.0), 낮은 생산성과 노무관리의 어려움(4.0) 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아세안 지역의 경우는 인프라의 불충분(3.2), 원자재 적기조달의 어려움(2.8), 낮은 생산성과 노무관리의 어려움(2.8)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先進國 地域의 경우 現地企業과의 競爭激化(특히 유럽과 일본)와 원자재 적기조달의 어려움이(유럽) 주요 애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밖에 외환조달 문제는 남미, 아프리카, 중국 등에서 다소 애로가 되고 있

으며, 현지시장 진출제한은 중국에서 다소의 문제가 되고 있음.

- 현지 원자재·부품사용 의무나 현지 政府機關의 간섭, 과실송금의 제한 등은 특별한 애로 사항으로 지적되지 않고 있음.

- 合作企業의 현지 합작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응답율이 낮기는 하지만 (48%) 전반적 경영권이 한국측에 속하는 경우가 88%에 이르렀고, 특히 한국측이 판매 방면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음.

- 합작파트너와 심각한 갈등이 표출된 경험이 있다는 기업의 비율은 15% 수준(86개 응답기업중 13개)이었음.

- 한편 현지에서 韓國企業과의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대답한 기업은 18% (137개 응답기업중 24개)에 달하였음.

6. 現地化

- 대부분의 기업들은 現地化의 必要性을 매우 중요하게(4.13) 여기고 있으며, 특히 현지인 高級管理者 育成(3.94)과 現地法人의 獨自的인 財務管理(3.17)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나름대로 현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특히 현지인 高級管理者 育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이 많았음(82%).

- 이외에도 現地化의 일환으로 現地法人의 獨自的인 財務管理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 70%를 상회하였음.

7. 評價

〈投資企業의 전반적 만족도〉

- 現 海外投資事業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응답(평균 3.51)을 보였음.
- 地域別로 만족도의 차이도 그리 크지 않았는 데, 아세안과 멕시코, 舊蘇聯·동구가 4.0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이어서 유럽(3.57), 미국(3.5), 서남아(3.5), 중국(3.4) 등의 만족도를 표시하였음.

〈賣出額 및 經常利益率〉

- 구체적인 經營成果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대답이 다수를 이루었는데, 최근년도의 매출액은 평균 50.5% 증가한 것으로 보고 되었음.
- 이러한 매출액 증가율은 많은 海外現地法人이 설립초기 단계에서 빠른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반영함.
- 經常利益率도 평균 11.7%로 나타나, 매우 높은 상태로 파악되었음(매우 높은 수익율을 얻은 소수의 기업의 영향이 작용).
-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중국과 아세안은 각각 8.4%, 5.7%의 경상이익율을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설문에 응답을 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은 기업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 수치가 일반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과실송금의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중(114개) 27%인 31개 기업만이 경험이 있다고 하며, 아직 과실송금이 일반화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줌.

〈모기업에 미치는 영향〉

- 海外生産으로 인하여 모기업이 받는 영향에 대해서는 오히려 모기업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한다는 응답이 감소한다는 응답에 비해 거의 3배의 강도를 보였음 (3.51 대 1.22).
- 海外投資로 인하여 모기업의 중요기술이 해외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확실히 그렇다는 응답이 30%,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49%에 달하며, 80% 정도가 실질적으로 기술이전이 나타나고 있음을 인정하였음.
 - 이러한 평가는 지역적으로 큰 偏差를 보이지 않았음.

〈新規投資計劃〉

- 應答企業의 62%(151개중 93개)가 既存 海外投資에 대하여 新規 海外投資 計劃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여, 해외투자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음.
 - 신규투자 지역으로 기존 투자지역에서의 투자확대 의욕도 비교적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41%), 다른지역에 대한 신규투자 계획도 활발할 것으로(61%) 나타났음.
 - 신규투자 지역으로는 중국, 베트남, 서남아(인도, 방글라데시), 남미(브라질) 등의 순서로 자주 지적되고 있음.
 -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내 타 지방으로 투자하겠다는 응답도 다수 나타났음.
- 5년 이내 撤收計劃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7%에도 못미치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8. 政策課題

- 政府의 전반적인 海外投資 規制緩和에 대하여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 規制緩和가 크게 진전되었다는 응답은 10%(153건중 15건)에 불과하지만 다소 진전되었다는 응답은 52%(80건)에 달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62%에 이르렀음.

○ 반면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34%(52건),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4%(6건)에 불과하였음.

- 1995년 10월 政府가 海外直接投資에 부과한 자기자본 조달비율 및 현지금융에 대한 모기업 지급보증 제한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강하게 나타났음.

○ 國民經濟 전체 입장에서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7%(146건중 25건)에 불과한 반면, 세계화에 역행하는 조치로 우리 經濟의 競爭力 弱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31%(45건)에 달했음.

○ 또한 의도에는 찬성하지만 實效성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36%(52건), 기업에 대한 규제에 반대하지만 역시 별 효과가 없는 것이라는 응답이 16%(24건)으로 나타나 이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함.

- 政府의 支援制度에 대해서는 금융 및 세계상의 지원(38.6%), 투자보장협정 등 정부간 보호장치 강화(22.9%), 통상협상을 통한 현지 투자여건 개선(21.9%), 각국의 投資環境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제공(16.7%)의 순서로 희망하였음.

- 해외 현지활동상의 애로사항 개선방안으로는 現地の 韓國投資企業 협의체 구성 및 활동확대가 (44.4%)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었으며, 이어서 현지 공관과의

협조확대(26.5%),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원기관의 현지활동 확대 (23.2%)의 순으로 지적되고 있음.

KIEP 發刊資料 案內

■ 政策研究

- | | | |
|-------|--|-----|
| 90-01 | GATT 11條國 移行에 따른 政策課題와 對應方案 ('90.03) | 金學洙 |
| 90-02 | EC 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의 變化 ('90.03) | 閔充基 |
| 90-03 | 換率制度和 外換危險管理 ('90.05) | 金宗萬 |
| 90-04 | 우루과이라운드 知的所有權 協商課題와 우리의 對應方案 ('90.05) | 孫讚鉉 |
| 90-05 | 韓國經濟의 自由化 現況과 OECD 加入戰略 ('90.06) | 金泰俊 |
| 90-06 | ASEAN 主要國의 貿易·產業政策과 投資環境變化 ('90.09) | 柳在元 |
| 90-07 |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中長期 經濟協力 方案 ('90.10) | 金學洙 |
| 90-08 | 美國通商政策의 中長期方向 ('90.10) | 金南斗 |
| 90-09 | 多者間서비스 協商과 우리나라 建設產業의 國際化 ('90.10) | 張義泰 |
| 90-10 | 日本企業의 海外直接投資와 國際化戰略 ('90.12) | 徐相祿 |
| 91-01 | 美日經濟摩擦과 우리의 政策課題 ('91.01) | 姜興求 |
| 91-02 | 主要換率變動의 特性和 政策示唆點 ('91.03) | 金宗萬 |
| 91-03 | EC 貿易構造의 變化 ('91.04) | 金廷洙 |
| 91-04 | 美國金融市場의 構造와 規制制度 ('91.03) | 李長榮 |
| 91-05 | 中國 經濟特區戰略의 評價와 韓國企業의 對應 ('91.04) | 吳勇錫 |
| 91-06 | 蘇聯의 對外貿易 및 金融制度의 改革 ('91.04) | 朴濟勳 |
| 91-07 |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와 韓國의 進出展望 ('91.04) | 金時中 |
| 91-08 | 우리나라 서비스交易의 構造와 推移 ('91.04) | 李相學 |
| 91-09 | 韓國·臺灣·日本의 換率變動과 輸出競爭 關係分析 ('91.05) | 曹琮和 |
| 91-10 | EC의 直接投資 環境變化와 對應方案 ('91.05) | 閔充基 |
| 91-11 | 韓國의 對外經濟協力에 관한 政策課題와 方向 ('91.07) | 金學洙 |
| 91-12 | 우리나라 세이프가드制度의 改善과 活用方案 ('91.08) | 蔡 旭 |
| 91-13 | 우리나라 서비스産業의 生産性變化和 生産性的 國際比較 ('91.08) | 兪鎮守 |
| 91-14 | 舊東獨의 價格體系와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 ('91.08) | 裴眞永 |
| 91-15 | 우루과이라운드 金融서비스協商과 證券産業의 競爭力 제고방안 ('91.08) | 金泰俊 |
| 91-16 | 폴란드 企業制度 改革과 直接投資與件 ('91.09) | 洪裕洙 |
| 91-17 | 韓·美間 直接投資의 구조와 投資環境의 變化 ('91.09) | 金南斗 |
| 91-18 | 한국·臺灣·日本의 產業政策과 產業構造調整 ('91.09) | 柳在元 |
| 91-19 | 우리나라 株式市場 開放의 效果分析 ('91.10) | 金宗萬 |

91-20	東北亞 經濟協力の 與件과 展望 ('91.12)	共 同
92-01	東北亞 地域 貿易構造와 域內 輸出競爭力 比較 ('92.01)	鄭永祿
92-02	貿易관련 政策 및 制度의 現狀과 改善方向 ('92.02)	共 同
92-03	統獨 1年の 경제적 評價와 展望 ('92.03)	裴眞永
92-0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① 日本의 貿易障壁 ('92.03)	俞鎮守
92-05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① 保險産業의 國際化戰略 ('92.03)	蔡 旭
92-06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② 原產地規程 ('92.03)	韓弘烈
92-0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③ 日本의 輸入品流通과 流通障壁 ('92.03)	趙炳澤 · 李永俊
92-08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② 會計서비스産業 國際化 推進方案 ('92.04)	金宗萬
92-09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③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國際化 戰略 ('92.06)	張義泰
92-10	러시아에서의 사유화 進展과 外國人 投資 與件 ('92.06)	朴濟勳
92-11	先進國의 對中 經濟交流 分析 ('92.06)	鄭永祿
92-12	中國의 企業集團 育成現況과 展望 ('92.06)	金益洙
92-1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④ 標準 및 檢査制度 ('92.07)	成克濟
92-1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⑤ EC의 貿易障壁 ('92.07)	閔充基
92-15	汎유럽經濟圈 形成의 展望과 影響 ('92.07)	金博洙
92-16	OECD 經常貿易外去來 및 資本移動 自由化規約과 韓國의 自由化 現況 ('92.07)	金泰俊
92-1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⑥ 金融서비스 關聯 障壁 ('92.07)	李長榮
92-18	유럽金融統合과 EC金融市場 進出方案 ('92.07)	李在雄
92-19	東歐 經濟改革의 類型과 成果 ('92.07)	洪裕洙
92-20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④ 流通産業의 開放效果와 對應戰略 ('92.07)	申世敦
92-21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⑤ 廣告産業의 國際競爭力 提高方案 ('92.07)	李相學
92-22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⑦ 政府調達 關聯 障壁 ('92.08)	崔仁範
92-2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⑧	金南斗

	美國의 貿易障壁 ('92.08)	
92-24	輸入先多邊化制度의 經濟的 效果 ('92.09)	共 同
92-25	東北亞經濟協力圈 形成을 위한 線形自由貿易地帶 構想과 그 期待效果 ('92.09)	孫炳海
92-26	UR 총점검 ('92.10)	共 同
92-27	換率, 金利 및 貨金變動이 우리나라 輸出에 미치는 영향 ('92.10)	金宗萬
92-28	國內先物去來所 設立·運營에 관한 研究 ('92.10)	共 同
92-29	日本의 産業 및 貿易構造의 變化와 展望 ('92.10)	金昌男
92-30	Korea's Recent Foreign Exchange Rate Systems ('92.12)	김진천
93-01	GATT 및 主要先進國의 反덤핑制度和 우리나라 制度의 改善方案 ('93.01)	蔡 旭
93-02	우리나라 市場開放政策의 特徵과 效果 ('93.01)	韓弘烈
93-03	中國 國營企業 改革의 展開와 展望 ('93.02)	金時中
93-04	日本의 技術貿易 ('93.02)	俞鎮守
93-05	豆滿江地域 開發構想에 대한 論議와 展望 ('93.03)	金學洙
93-06	블럭化時代의 亞·太經濟協力 ('93.03)	共 同
93-07	中國의 技術導入 政策과 中日技術協力 ('93.03)	吳勇錫
93-08	러시아의 軍需産業 民需轉換에 관한 研究 ('93.03)	朴濟勳
93-09	日本市場에서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3)	康仁洙
93-10	日本 換率政策의 方向과 우리나라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93.03)	金宗萬
93-11	日本 自動車産業의 競爭力 強化와 下請分業生産의 役割 ('93.04)	任千錫
93-12	先物去來 上場品目 選定에 관한 研究 ('93.04)	曹正鉢
93-13	우리의 對舊蘇聯 經濟協力 基本戰略 ('93.04)	李昌在
93-14	外換市場介入政策의 效果分析과 換率政策에 대한 政策示唆點 ('93.05)	金泰俊
93-15	中國의 工業發展戰略과 産業政策 ('93.05)	金益洙
93-16	中國 輸入構造變화와 우리의 對應方向 ('93.05)	鄭永祿
93-17	EC 經濟統合과 우리나라의 輸出構造 變化 ('93.05)	閔充基
93-18	韓美間 産業構造의 特性이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93.08)	成克濟
93-19	NAFTA의 出帆과 美國 輸入市場에서와 韓國과 멕시코의 競爭力 比較 ('93.08)	金尙謙
93-20	EC市場에서의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8)	金博洙
93-21	韓·中 環境協力에 관한 研究 ('93.09)	共 同
93-22	知的財産權 國際化의 方向과 課題 ('93.11)	王允鍾

93-23	日本の對아시아 技術移轉 戰略과 韓國의 對應 ('93.11)	洪裕洙
93-24	러시아 極東地域의 經濟와 우리의 經濟協力方案 ('93.11)	李昌在
93-25	UR 총점검(增補版) ('93.12)	共同
93-26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⑥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現況과 國際化 方向 ('93.12)	孫讚鉉
93-27	南·北韓의 統一에 비추어 본 獨逸 信託管理公社의 役割과 意義 ('93.12)	朴成勳
93-28	臺灣企業 中國投資의 現況과 波及效果 ('93.12)	金時中
93-29	CIS 域內 交易 및 金融關係 分析 ('93.12)	朴濟勳
93-30	日本企業의 對中直接投資의 動向과 戰略 ('93.12)	金益洙
93-31	最近 우리나라의 日本技術 導入現況과 政策方向 ('93.12)	任千錫
93-32	環境關聯 經濟의 手段의 運用 現況 및 展望 ('93.12)	李鎬生
93-33	亞·太經濟協力の 새 方向 ('93.12)	共同
93-34	交易條件變化와 資本自由化의 效果分析 ('93.12)	表鶴吉·權皓寧
93-35	21世紀를 향한 韓·日間 技術分業과 技術協力の 基本方向 ('93.12)	朴宇熙·森谷正規
93-36	中國의 對外貿易과 韓·中 輸出競爭 ('93.12)	吳勇錫
93-37	資本自由化와 換率政策方向 ('93.12)	孫正植·朴大權
93-38	東歐改革의 進展과 經濟協力 擴大戰略 ('93.12)	鄭甲泳
93-39	資本自由化에 관한 事例分析: 開途國과 先進國의 경험 ('93.12)	金仁竣
93-40	亞·太經濟協力の 深化方案 ('93.12)	共同
93-41	東歐 主要國의 民營化 研究 ('93.12)	尹健秀
93-42	우리나라의 對東歐 交易現況과 展望 ('93.12)	權寧璵
94-01	戰略的 提携와 技術革新의 國際化 ('94.01)	洪裕洙
94-02	NAFTA 原產地規程의 意義와 政策示唆點 ('94.01)	韓弘烈
94-03	統一이 東西獨의 産業立地와 産業構造에 미친 影響 ('94.02)	裴眞永
94-04	議題 21과 우리나라의 持續可能開發 戰略 ('94.02)	韓宅煥
94-05	WTO出帆과 新交易秩序-분야별 內容과 示唆點 ('94.07)	共同
94-06	韓美間 科學技術協力 強化方案 研究 ('94.11)	洪裕洙
94-07	外國人 直接投資의 技術移轉效果에 관한 研究 ('94.11)	王允鍾
94-08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 Progress in Conceptualization and in Practice ('94.12)	共同
94-09	21世紀 東北亞經濟協力を 위한 推進戰略 ('94.12)	李昌在
94-10	韓中經濟協력과 在中國同胞의 役割 ('94.12)	金時中
94-11	ASEAN 主要國의 外國人直接投資誘致와 그 示唆點 ('94.12)	魯在峯
94-12	韓美間 中長期 産業技術協力方案 ('94.12)	洪裕洙

94-13	知的財産權과 競爭政策의 國際的 調和 ('94.12)	丁相朝
94-14	外換 自由化와 換危險管理 ('94.12)	朱尙榮
94-15	統一以後 東獨經濟의 產業構造變化 研究 ('94.12)	金龍龜·朴成勳
94-16	戰略的 貿易政策으로서의 R&D 補助金 政策의 方向 ('94.12)	李正淵
95-01	日本企業의 對中進出: 主要業種의 成果分析과 向後展望 ('95.05)	申晚秀·李掌魯
95-02	國際金融市場의 統合과 資本費用 ('95.05)	權才重
95-03	중국 內需市場의 構造的 特性和 進入 流通障壁 : 消費財 工山品 市場을 中心으로 ('95.05)	金益洙
95-04	亞·太 經濟協力の 新構想 ('95.06)	李載星
95-05	貿易-環境 關聯課題와 우리나라의 立場 ('95.10)	韓宅煥
95-06	우리나라의 公的開發援助 ('95.10)	李昌在
95-07	日本 對美直接投資의 開發 및 評價 ('95.12)	金寬濤
95-08	OECD 投資規範과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制度 ('95.12)	王允鐘
95-09	貿易과 環境의 連繫 ('95.12)	李鎬生
95-10	중국의 WTO 가입이 中國經濟와 韓·中 經協에 미치는 영향 ('95.12)	金益洙
95-11	海外 委託加工輸入에 대한 關稅減免制度의 效果 分析 ('95.12)	金準東·康仁洙
95-12	東北亞 地域技術協力體의 構想 ('95.12)	洪裕洙
96-01	ASEAN 自由貿易地帶(AFTA)의 展開過程과 그 示唆點 ('96.04)	元容杰

■ 政策資料

90-01	蘇聯·中國 및 東歐의 變化와 對應 ('90.01)	共同
90-02	1990年代 國際經濟 環境 變化와 對應戰略 ('90.06)	共同
90-03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協商의 進展狀況과 우리의 對應方案 ('90.08)	朴泰鎬
90-04	中國의 經濟改革에 있어서 分權化 및 市場經濟化의 展開 ('90.10)	蘇侖燮
90-05	美國·日本의 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0.11)	李長榮
91-01	北韓의 에너지 需要와 供給 ('91.03)	張榮植
91-02	北韓의 貿易 및 對外經濟 ('91.03)	姜正模
91-03	蘇聯 經濟改革政策과 우리의 對應 ('91.05)	李善煥·方燦榮
91-04	臺灣·日本의 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1.09)	李長榮
91-05	外國人 直接投資의 生産性 效果分析 ('91.10)	崔仁範·玄定澤
91-06	韓國의 對메트남 經濟協力 基本戰略 ('91.11)	金學洙
91-07	蘇聯建設市場과 韓國建設業體의 進出 可能性 分析 ('91.12)	朴康植

91-08	技術障壁에 대한 國際的 論議와 對應方案 ('92.12)	孫讚鉉
92-01	中國工業經濟效率과 工業體制改革에 관한 研究 ('92.01)	共同
92-02	獨立國家聯合의 出帆과 韓·蘇 經濟協力 ('92.01)	朴濟勳
92-03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과 活性化方案 ('92.03)	金南斗·柳在元
92-04	EEA 創設의 問題點과 域外國들에 대한 影響 ('92.04)	閔充基
92-05	아시아 主要 開發途上國의 非關稅障壁 ('92.07)	魯在峯
92-06	EC 海運産業의 變化와 示唆點 ('92.08)	閔充基
92-07	海外直接投資의 現況과 政策課題 ('92.09)	共同
92-08	클린턴 次期 美國大統領의 經濟政策 ('92.11)	共同
92-09	對內外與件 變化와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 ('92.12)	金益洙
92-10	1993年度 國際經濟環境變化展望과 對應戰略 ('92.12)	共同
93-01	南北韓 物資交流과 原產地規程 ('93.05)	韓弘烈
93-02	GATT 最惠國待遇 原則과 南北韓 物資交流 ('93.07)	韓弘烈
93-03	韓國의 無償援助와 有償援助의 連繫方案 ('93.07)	金學洙
93-04	EC 競爭政策 變化와 우리의 對應方案 ('93.08)	閔充基
93-05	최근 世界經濟의 沈滯와 우리經濟에의 示唆點 ('93.09)	共同
93-06	西方의 對러시아 經協전략과 示唆點 ('93.10)	朴濟勳
93-07	主要國의 先物市場 規制定策 ('93.10)	曹正錄
93-08	國際貿易紛爭의 現況과 GATT의 役割 ('93. 11)	蔡旭
93-09	主要國의 輸出支援制度 現況과 우리制度의 改善方案 ('93.12)	金準東
93-10	貿易과 競爭政策: OECD의 論議 ('93.12)	金廷洙
93-11	러시아 經濟改革의 進行 狀況과 評價 ('93.12)	李昌在
93-12	地域主義 深化와 韓國의 選擇 ('93.12)	魯在峯
93-13	國內 製造業分野 外國人投資企業의 現況 및 特性 ('93.12)	金寬濤
93-14	日本의 金融自由化와 外貨의 國際化 ('93.12)	權才重
93-15	競爭政策에 관한 國際的 論議와 獨占禁止法의 域外適用 ('93.12)	俞鎮守
93-16	通貨先物市場 導入에 관한 研究 ('93.12)	金哲三
93-17	OECD 主要國의 科學技術政策 ('93.12)	洪裕洙
94-01	1994年度 世界經濟 展望과 對外經濟政策課題 ('94.01)	
94-02	EC通貨統合의 進展과 波及影響 ('94.01)	曹琮和
94-03	國際金融 環境變化와 企業의 國際金融市場 活用戰略 ('94.01)	曹正錄
94-04	技術導入과 테크노마트의 活用 ('94.03)	王允鍾
94-05	戰換期의 臺灣經濟 ('94.02)	柳在元
94-06	우리經濟의 國際化 ('94.04)	金博洙·金廷洙
94-07	新三低-舊三低의 比較分析과 政策對應 ('94.05)	共同
94-08	主要國의 投資自由地域 運營現況과 우리制度의 改善方案	金準東

('94.05)

94-09	北韓의 交易現況과 對外經濟政策 ('94.10)	金尙謙
94-10	對日貿易 赤字國의 對應실태와 示唆點-臺灣의 경우 ('94.10)	任千錫
94-11	環境産業의 國際動向 및 政策示唆點 ('94.10)	張台求
94-12	UN 持續開發委員會의 論議現況 및 政策課題 ('94.11)	李鎬生
94-13	1995年度 世界經濟展望과 對外經濟政策課題 ('94.12)	共同
94-14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94.12)	王允鍾
94-15	서비스交易과 세이프가드 ('94.12)	蔡旭
94-16	글로벌化 時代에서의 輸出과 海外直接投資 ('94.12)	金準東
94-17	豆滿江地域開發事業과 韓半島 ('94.12)	金益洙
94-18	러시아 經濟改革의 地方別 波級影響 ('94.12)	李昌在
94-19	金融監督規制의 現況과 對應方案 : 資本適正性을 中心으로 ('94.12)	曹琮和
94-20	ASEAN 自由貿易地帶의 結成과 韓國의 對外貿易政策 ('94.12)	吳尙勉
94-21	OECD 主要國의 ODA 支援現況과 韓國의 對應戰略 ('94.12)	金學洙
94-22	東北亞 環境協力の 推移와 課題 ('94.12)	韓宅煥
94-23	서비스交易에 있어서의 交易障壁 : 美國, 日本, EU의 서비스 讓許表를 中心으로 ('94.12)	禹榮洙
94-24	美國 通商政策의 基調와 對東아시아 貿易自由化 方案 ('94.12)	金尙謙
94-25	엔高下에서의 日本企業의 對應實態와 示唆點 ('94.12)	任千錫
94-26	專門職業서비스 供給者의 資格認定 ('94.12)	金址鴻
94-27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 A Review of the Current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94.12)	Eugene John Park
94-28	海外資金調達の 國內巨視經濟에 미치는 影響 ('94.12)	張義泰
94-29	海外資金調達の 國際的 現況과 政策示唆點 ('94.12)	孫讚鉉
95-01	UR 이후 競爭政策에 관한 國際的 懸案 ('95.04)	俞鎮守
95-02	貿易과 環境: GATT/WTO의 논의 ('95.04)	李鎬生
95-03	主要 先進國의 對韓 輸入規制 形態 比率分析 ('95.05)	康仁洙
95-04	農畜産物 市場開放에 따른 輸入管理方案 ('95.06)	姜奉淳
95-05	일본기업의 對 아시아 직접투자 ('95.06)	李東琪 · 李允喆
95-06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追加開放方案 ('95.08)	金準東
95-07	WTO體制下的 南北韓 經濟 交流 : 南北韓 經濟交流와 國際規範과의 調和方案 ('95.10)	李相萬
95-08	APEC 經濟協力과 原產地規程 ('95.10)	韓弘烈
95-09	共同研究開發과 國際的 라이선스契約에 관한 主要國의 競爭政策 ('95.11)	俞鎮守
95-10	1996年度 世界經濟展望과 對外經濟政策課題 ('95.12)	

- 95-11 中國經濟의 國際化 評價 ('95.12) 鄭永祿
 95-12 OECD 統計活動 現況과 示唆點 ('95.12) 尹昌仁
 95-13 北韓의 經濟實狀과 우리의 北韓經濟 評價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趙明濟
 問題點 ('95.12)
 96-01 APEC 主要國의 交易構造와 自由化의 經濟的 效果 ('96.04) 金尙謙
 96-02 世界經濟動向 및 主要 世界經濟懸案 ('96.06) 共 同

■ 세미나資料

- 90-01 EC 統合과 政策對應 ('90.01) 共 同
 90-02 우루과이라운드 協商과 우리의 對應方案 ('90.04) 朴泰鎬
 90-03 韓國과 社會主義圈의 關係發展 및 南北韓 關係變化의 展望 吳勇錫
 ('90.06)
 90-04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Jang-Won Suh & Jae-Bong Ro (eds.)
 : The Way Ahead ('90.10)
 91-01 EC 統合과 우리의 對應方案 ('91.02) 閔充基
 91-02 Uruguay Round Taeho Bark & Wook Chae (eds.)
 : Unresolved Issues and Prospects ('91.09)
 91-03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91.12) Jang-Won Suh (ed.)
 92-01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EC and Korea Chung Ki Min (ed.)
 : Problems and Prospects ('92.06)
 92-02 Russia's Reform and Economic Cooperation Jehoon Park
 between Korea and Russia ('92.09)
 93-01 Two Years Since German Unification ('93.02) Jin Young Bae (ed.)
 93-02 Korea's New International Economic Diplomacy and Jang-Won Suh
 Globalization Policy ('93.05)
 93-03 The Asian Dimension of EC Integration ('93.12) Bak-Soo Kim
 93-04 Regional Context for Korea's Dynamism ('93.12) Chang-Jae Lee
 94-01 韓日經濟協力の 新構想 ('94.06) 任千錫 編
 94-02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 ('94.06) 金時中 編
 94-03 新세계무역체제와 한국 - 서덜랜드 GATT사무총장 초청강연 ('94.09)
 94-04 Korea-U.S.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Yoo-Soo Hong (ed.)
 Forum 2 ('94.11)
 94-05 Trade-Environment Issues and Korea's Alternatives Taek-Whan Han (ed.)
 ('94.12)
 95-01 中國의 改革 開放과 韓中經濟協力の 未來 ('95.04) 金時中
 95-02 Korea in the New World Economic Order Sung-Hoon Park
 : Issues and Solutions for the Future ('95.11)

96-01 21世紀를 向한 韓·中 共同繁榮의 摸索 ('96.02) 北京支院

■ Working Paper

- 90-01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ies in the Asia-Pacific : Working Mechanism and Linkages ('90.08) 金廷洙
- 90-02 Strategic Partnering Activity by European Firms through the ESPRIT Program ('90.08) L.Y.Mytelka
- 91-01 Models of Exchange Rate Behavior: Application to the Yen and the Mark ('91.01) 郭承榮
- 91-02 Anti-dumping Restrictions against Korean Exports : Major Focus on Consumer Electronic Products ('91.05) 朴泰鎬
- 91-03 Implications of Economic Reforms in CEECs for DAEs : with Emphasis on the Korean Case ('91.07) 洪裕洙
- 91-04 The ANIEs-an Intermediate Absorber of Intraregional Exports? ('91.07) 柳莊熙
- 91-05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and the Korean Economy ('91.10) Taeho Bark
- 92-01 Changing World Trade Environment and New Political Economics ('92.09) Jang-Hee Yoo
- 93-01 Economic Effects of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Policy(ISDP) ('93.01) In-Soo Kang
- 93-02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93.03) Jai-Won Ryou · Byung-Nak Song
- 93-03 German Economy after Unification-Facts,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Korea ('93.06) Sung-Hoon Park
- 93-04 A Note On Korea's Anti-dumping System and Practices ('93.06) Wook Chae
- 93-05 Structural Changes in Korea's Exports and the Role of the EC Market ('93.10) Chung Ki Min
- 93-06 Tax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93.12) Joo-Sung Jun
- 93-07 Leveraging Technology for Strategic Advantage in the Global Market : Case of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 ('93.12) Yoo Soo Hong
- 93-08 Changing Patterns of Korea'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93.12) Jin-Soo Yoo
- 94-01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for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94.01) Chang Jae Lee

- | | | |
|-------|--|------------------------------|
| 94-02 |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n and Russia ('94.08) | Je Hoon Park |
| 94-03 | Technology Transfer : the Korean Experience ('94.11) | Yoo Soo Hong |
| 96-01 | Globalization and Strategic Alliance Among Semiconductor Firms in the Asia-Pacific : A Korean Perspective ('96.04) | Wan-Soon Kim |
| 96-02 | Toward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in Korea : Retrospects and Prospects ('96.04) | June-Dong Kim & Yunjong Wang |
| 96-03 | International Trade in Software ('96.04) | Suchan Chae |

政策資料 96-03
海外直接投資의 評價와 政策課題

1996年 6月 27日 印刷

1996年 6月 29日 發行

發行人 柳 莊 熙

發行處 對 外 經 濟 政 策 研 究 院

서울市江南區大峙洞942-1番地君子빌딩14層-18層

電話：528-5555 FAX：528-5511, 5522

登錄：1990年 11月 7日 第 16-375號

印 刷 오름시스템(주) 전화：273-7011

* 本 報告書 內容의 無斷 轉載·譯載·複寫를 禁함

ISBN 89-322-2047-6